



K-공감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내게 맞는 휴대폰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가족 행복 키우는 법! 입양 홍보대사 전성신 씨
MZ들의 직업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May 27, 2024
Seoul, Korea



“한·일·중 협력이 민생에 보탬되게”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대한민국 안전 > 전환 >>



집중안전점검기간

2024.
4.22 ~ 6.21

점검대상

노후·고위험 시설물 약 2만6천여개소

참여방법

구분	내용	참여방법
일반국민	내 집 스스로 점검하기 생활 속 위험요인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앱 활용
다중 이용시설 관계자	내 건물과 업소를 안전점검표를 통해 점검하고 결과 게시하기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에서 자율안전점검표 다운로드



내 주변의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몸으로 기술을 배운다는 것

자동차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면 인터넷으로 엔진오일을 비롯한 소모품을 사서 카센터에 간다. 공임만 받고 엔진오일을 교체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편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같은 곳에서 엔진오일 자가 교체법이라든가 바가지 씌우는 카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니까 아예 공임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생겨났다.


사실 엔진오일 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차에서 낡은 오일을 빼내고 새 오일을 부어주면 된다. 다만 그러기 위해선 차를 들어올려야 하고, 오일을 빼내고 오일필터를 교체하는 데 특수한 공구가 필요하다. 폐오일 처리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마다 오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 오일이나 넣어서도 안되고 오일의 정량도 차마다 다르다.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이다.

30여 년 전 미국 시골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미국인들이 일상생활의 웬만한 작업과 우리는 직접 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집집마다 사다리와 전기톱을 비롯한 각종 공구와 커다란 작업대가 있었다. 그때 내가 잠시 머물던 곳의 집주인은 자동차 엔진오일도 직접 갈았다. 차를 자키(차를 드는 도구)로 들어올린 뒤 누운 자세로 차 밑에 들어가 오일을 빼냈다. 폐오일은 동네마다 모아서 처리하는 곳이 있었다.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는 오일필터와 공기필터도 함께 새것으로 바꿔준다. 아마 교체 주기가 비슷하고 엔진룸 안에 있는 소모품이어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 같다. 다만 에어컨필터는 공임을 따로 줘야 교체해준다. 딱히 어려운 일이어라기보다 별개의 작업이란 개념 때문인 듯하다. 에어컨필터는 대개 자동차 조수석 앞 서랍 속에 있는데 나사 두 개를 풀어 기존 필터를 빼내고 새 필터를 넣은 뒤 잠가주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다.

에어컨필터를 직접 교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내 차의 에어컨필터는 조수석 서랍 아래 깊숙한 곳에 있었다. 나사도 평범한 것이 아니어서 특이한 모양의 두 가지 렌치가 필요했다. 아파트 주차장 한산한 곳에 차를 세우고 랜턴 두 개를 비춰가며 일을 시작했다.

정말 깊고 깊은 곳에 에어컨필터가 있어서 조수석 바닥에 드러눕다시피 해야 했고 자연스레 아크로바틱 자세가 됐다. 아주 낮은 장대 밑을 통과하는 림보 자세 또는 소림권법의 한 자세 같기도 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땅바닥에 구르다시피 해서 정말 자동차 수리공 같은 행색이 됐다. 공임이 비싼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한편으론 이제 요령을 알았으니 다음번에는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몸을 써서 기술을 한 가지 배웠다는 뿌듯함마저 들었다.

요즘은 셀프정비소라는 게 있어서 돈을 얼마 내면 각종 기계와 공구를 맘대로 쓸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다. 다음번엔 아예 헌옷으로 갈아입고 엔진오일도 직접 갈아볼까 싶다. 혹시 모르지 않는가. 새로운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찾게 될지도. 




한현우

신문기자 이력 30년 중 대부분을 문화부 기자로 글을 써왔다. 일간지 문화2부장, 논설위원을 거쳐 현재 문화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신비한 울림 성덕대왕신종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국보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종이다. 신라 시대 최대 걸작으로 꼽히는 범종(梵鐘)이다. 신라 성덕대왕의 공을 알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해 실패를 거듭하다 34년 만인 771년 성덕왕의 손자 혜공왕(惠恭王)이 어렵사리 완성시켰다. 무려 1만 8900kg의 구리를 녹여 만들어 웅장하고 신비스러운 소리를 낸다. 처음에 경주 봉덕사에 달았다고 해 봉덕사종이라고 하고, 아기를 시주해 넣었다는 설화로 인해 '예밀레종'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 번 듣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소리'라는 뜻의 일승지원음(一乘之圓音)이 적혀 있는 성덕대왕신종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는 용뉴에는 용왕의 아들이라는 포뢰의 머리 모양이 조각돼 있다. 종의 맨 위에는 타종할 때 파상되는 잡음을 제거하는 대나무 모양의 음통이 있다. 음통은 우리나라 동종에서만 볼 수 있다. 몸통의 종을 치는 부분에는 연꽃 모양으로 두 개의 당좌(撞座)가 있다. 종을 치는 나무 막대인 당목(撞木)은 고래 모습을 하고 있다. 불교학 전문가인 동국대 한정호 교수는 "상상의 동물인 포뢰는 고래를 무서워해서 당목이 연꽃을 치면 종소리를 지른다"고 설명했다.

조선 시대 사찰들이 없어질 때에도 성덕대왕신종은 세종의 명으로 살아남았다. 세종실록에는 '무게는 구리(銅) 12만 근인데 치면 소리가 100여 리까지 들린다'고 기록돼 있다. 또 세종 6년(1424년) 5월 3일 임금의 명령을 전달한다는 전지(傳旨)에 의하면 '경상도 경주 봉덕사의 큰 종은 제거하지 말라(慶尙道 慶州 奉德寺大鍾 勿毀)'고 기록돼 있다. 



강형원

1963년 한국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민했다. UCLA를 졸업한 뒤 LA타임스, AP통신, 백악관 사진부, 로이터통신 등에서 33년간 사진기자로 근무했고 언론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풀리처상을 2회 수상했다.







2024.06.03-09

No.757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4년 6월 3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발행인 유인촌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프린피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표지사진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01

더 공감

한현우

'몸으로 기술을
배운다는 것'

02

강형원 기자의 문화유산 찾기

신비한 올림

성덕대왕신종

06

커버스토리

“한·일·중 협력이 민생에 보탬되게”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 FTA 논의도 가속화

한일 정상회담 - “2025년 국교정상화
60년 한일관계 한층 도약”

한중 정상회담 - 2+2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정책 돋보기

14

지금 용산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에너지·기술·안보 협력 강화”

16

알쓸정책

전력자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외

20

돈 되는 정책

‘스마트초이스’ 개편

21

정책 돋보기

학생건강검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노인·노숙인·족방주민 등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강화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1인 항공료 최대 50% 할인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세계에 제대로 알린다





40

26

이 주의 키워드
플랫폼 종사자

28

포커스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30

윤석열정부 취임 2년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④ 미래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38

이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755억 원 추가 투입

40

K-피플
제19회 '입양의 날' 대통령상 수상
전성신 씨



52

44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
탄소만 쏙 잡아서
저장하고 활용하고
탄소중립 게임체인저가 왔다

46

어피티가 본 MZ 생각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49

정책현장
한강물환경연구소
‘환경연구 진로체험’ 하던 날

52

작은 영웅들
20주년 맞은
장애인 사물놀이패 땀띠



58

55

청룡이의 정책툰
국가유산청 출범

56

신기율의 마음 상담소
“일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돌아보니 뭔가 빠진 듯
내가 잘 살아온 걸까요?”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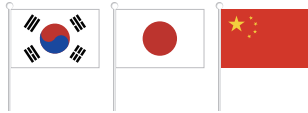
여행이 있는 주말 한국관광 100선
제주 동부 여행

62

함께 즐기자
코리아뷰티페스티벌 외
피플 - 책 '결과를 아는 선택은 없다' 펴낸
전 축구선수 이동국

64

독자 공감



한·일·중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FTA 협상에 속도

“3국 민생에 보탬이 되는 협력 강화하겠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하고 인적 교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세 정상은 경제·통상,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3국 국민이 3국 협력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3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간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한국 정부 주도로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 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3국 정상회의는 불규칙적으로 개최됐다. 그러던 것을 정례화해 3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은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국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뿐 아니라 주변국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The Ninth Trilateral Summit Meeting among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y 27, 2024
Seoul, Korea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7일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와 더불어 논의된 것이 한·일·중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TCS는 3국이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 문화 창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3국의 협업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기구의 역량을 강화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2030년까지 4000만 명 교류 목표

공동선언문에는 3국 국민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담겼다.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를 다시 활발하게 해 2030년까지 4000만 명이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미래세대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2025년과 2026년은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 콘텐츠 산업 포럼 등을 통해 3국 국민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이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은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돼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

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3국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협상 속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역내 금융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 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협력도 강조됐다. 3국 정상은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에 대비해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3국 간에는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3국 정상이 합의한 바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

한다”며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3국 이외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전망이다.

기후변화·팬데믹에 대한 협력도 확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초국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 3국 역시 탄소중립,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 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은 파리협정의 온도 달성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는 한편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방침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 등의 위협이 여전한 만큼 이에 대응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국은 우선 미래 팬데믹 예방과 대응·대비를 국가전략 우선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개최

“경제협력 활성화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27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공동으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물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런홍빈 CCPIT 회장 등 280여 명이 참석한 서밋은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3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경제인들은 협력체제 복원을 위해 역할을 다해왔다”며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밋을 개최한 3국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과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3국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위로 설정하기로 했다.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에 관한 접근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3국 정상은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며 “국제기구나 관련 기금을 통한 세계적 차원에 동참해 감염병에서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3국 정상 역시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확인하며 한국 정부가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녹색·저탄소 사회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재난구호와 안전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3국 정상은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

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자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3국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3국의 협력은 글로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점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앞에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나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역내와 글로벌 차원의 여러 도전을 3국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효정 기자

한·일·중 정상 환영 만찬

3국 도예가 작품 배경으로 만찬 “따오기처럼 3국 협력 결실 맺길”

윤석열 대통령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5월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환영 만찬을 진행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상징으로 따오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던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체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강조했다. “3국 청년들이 한국의 K-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하고 서로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개척해나간다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경력이 20년 이상인 3국의 도예가들이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다.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일본과 중국의 민요를 불렀고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가 연주됐다. 만찬의 마지막은 3국의 현대음악 밴드가 나섰는데 양코르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만찬 메뉴로는 3국의 공통 식재료인 두부, 만두, 장류를 활용한 대개 궁중 어만두, 한우 양념갈비, 오색 곶감반, 시금치 된장국 등 한식이 제공됐다.



“2025년 국교정상화 60년 한일관계 한층 도약”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월 2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연 1회 정상회담이다.

한일 양국의 ‘서틀외교’는 2023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에 복원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각계 각급에서 교류가 크게 증진됐다”며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서틀외교를 재개한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각각 두 번씩 양국을 오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3월 도쿄를 찾았고 5월에도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총리와 만났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5월 서울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좌한 후 6개월 만에 만남 양 정상은 이날 양국의 긴밀한 소통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재단’에 대한 기업의 출자 규모를 늘려 청년층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재단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설치된 재단이다. 한국에서는 한일 미래 파트너십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10억 원, 일본에서는 일한 미래 파트너십 재단으로 1억 엔 규모의 자금을 출자해 2023년 6월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단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을 밝히며 “일본

(케이단렌)이 먼저 추가로 2억 엔을 모금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측에서도 재단의 기금을 확충할 것이라는 점을 함께 전했다.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의 폭 넓히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경제안보, 중소기업·스타트업,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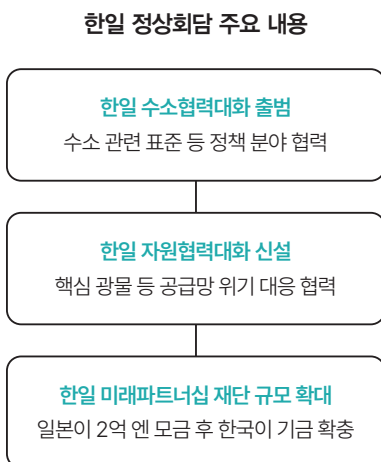
보통신기술(ICT)·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6월 중순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서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을 비롯해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같은 시기에 신설된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경산성) 간에 만들어지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대한 협력을 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전망이다.

한일 간 경제협력은 그 폭을 넓히고 있다. 2024년 4월 결성된 글로벌 펀드가 그중 하나인데 이 펀드는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출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본 경산성 국장급이 참석한 중소벤처 정책 대화가 5월 13일 개최됐고 활성화될 예정이다. 2023년 12월에는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일본 총무대신이 참여하는 제1차 한일 ICT 정책포럼도 개최돼 양자나 우주,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에서 소셜미디어



라인은 한국의 카카오톡처럼 ‘국민 메신저’로 쓰이고 있다. 2023년 11월 라인에서 약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라인야후 사태를 촉발했다.

일본 총무성은 2024년 들어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대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 나섰다. 그러면서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현재의 자본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 핵심 인프라는 자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즉 총무성이 나서 라인야후에서 네이버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된 것이다.

라인야후 사태 “잘 관리할 필요 있다”

윤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렸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정부는 이 현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가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를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협상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며 일본 정부 역시 오해받지 않게 조심하라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원칙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답했다. 네이버를 몰아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 간에 초기에 잘 소통하며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긴밀한 소통은 양 정상 사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의 성과가 착실히 쌓이고 있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2025년에는 한일관계를 한층 도약시키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K**

김효정 기자



한중 정상회담

2+2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재개

윤석열 대통령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5월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사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되고 양국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 수출통제대화체’도 출범한다.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동안 경색됐던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자”고 말했다. 리 총리도 이에 화답해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하는 중국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 정사는 먼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교안보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화 신설은 중국 측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이는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하려면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두 정사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이 재개된 것 또한 마찬가지다.

양국 관계는 외교안보의 긴장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협력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2단계 논의가 재개되면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협

력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후 가진 브리핑에서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는 2014년 상품 분야에 대한 협상이 타결돼 2015년 12월 발효됐다. 당시 양국은 먼저 포지티브(허용하는 것 외에는 불허하는 규제)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개방하고 2년 내에 네거티브(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규제) 방식의 후속 협상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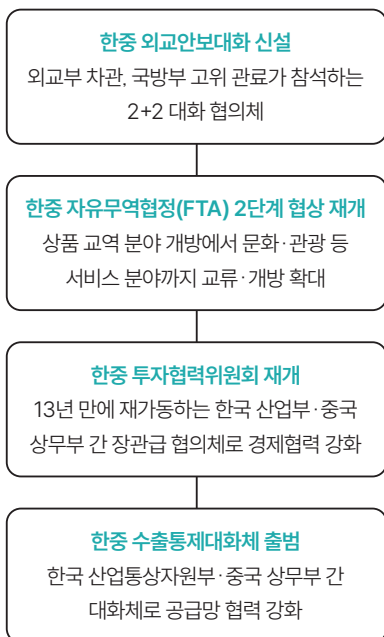
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2017년 한한령을 내리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협상이 이어지지 못했다.

투자 분야에서도 양국 정상은 성과를 도출해냈다. 13년 만에 재개될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라고 설명하며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리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활발히 투자하고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더드에 맞는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고 국제화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도 한중 수출통제대화체가 새로 출범한다. 대통령실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설치됐던 한중 공급망협력조정협의체와 한중 공급망 핫라인도 가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두 정상 합의는 실질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중 하나로 2024년 하반기 중 한중 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가 열린다. 2023년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기획재정부와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1차 회의

한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



를 개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기업인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두 정상은

서로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가 풍부하게 생산될 수 있게 교류를 넓혀나가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해 2021년 9월 이후 중단됐던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24세부터 33세까지의 청년을 50명씩 교류하는 양국 청년 교류 사업도 재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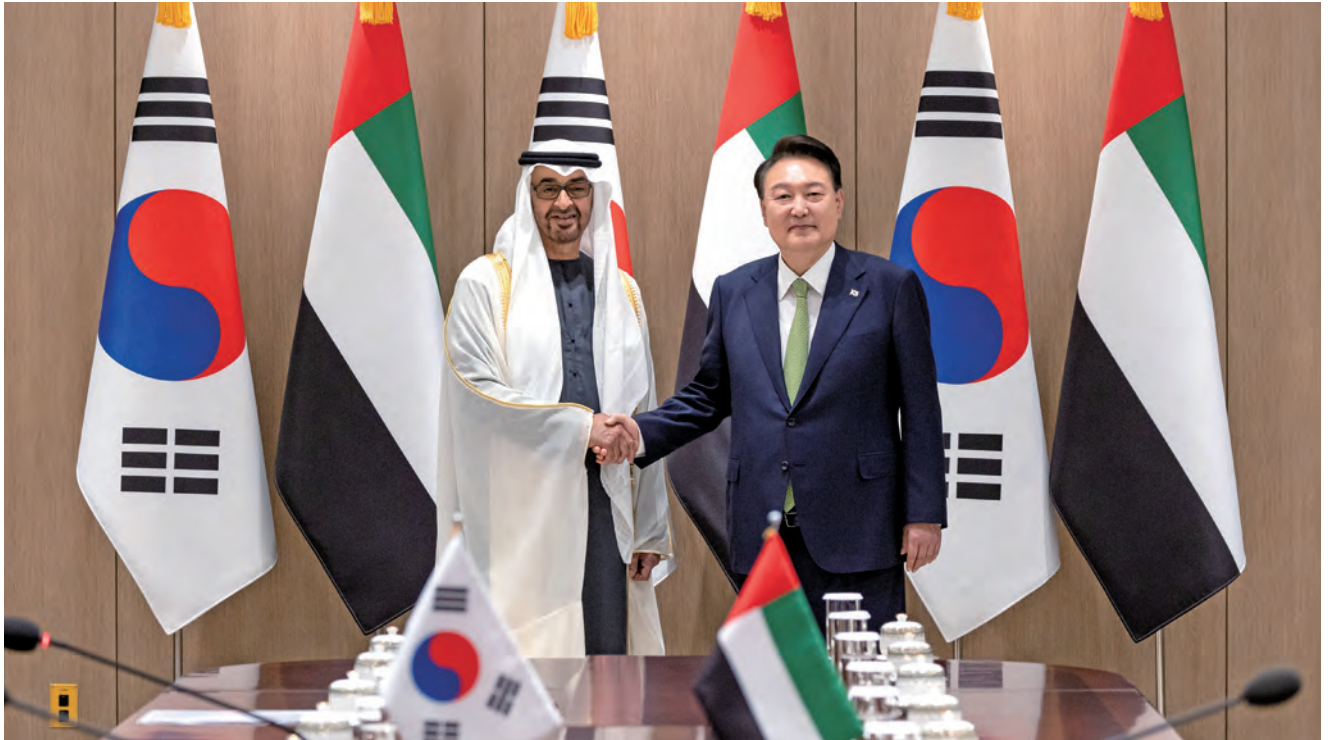
이처럼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대화체를 개설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중관계가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국제사회에서 한중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가 엄중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해왔듯이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 반갑게 리창 총리 맞이한 윤 대통령

2023년 3월 취임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국가 서열 2위인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9년 만의 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 총리는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는데 8개월 만에 한국에서 재회했다. 이에 반가움을 표기한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배웅하는 길에 중국 당나라의 시인 두보의 시를 인용했다. 마침 회담이 끝날 무렵 비가 내리는 것을 두고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뜻의 두보의 시 ‘춘야희우’를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재회에 대한 반가움과 더불어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말하자 리 총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노력해 서로에게 믿음직한 좋은 이웃, 또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5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에너지·기술·안보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국민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열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아랍권 국가와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전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친교 일정,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UAE 대통령의 최초 국민 방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2023년 1월 UAE 국민 방문을 계기로 약속받았던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UAE 측은 300억 달러 중 6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검토에 들어갔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상회담 뒤 우리나라와 UAE 측은 CEPA를 포함해 총 19건의 협정·양해각서·의향서 등을 체결했다. 먼저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액화천

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현재 400만 배럴인 공동 원유 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MOU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선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첨단기술 분야에선 중동 정보기술(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연구거점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R&D) 확대, 우수인재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분야로 협력 지평을 넓히기 위한 ‘중소벤처위원회 신설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중소벤처 분야에서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5월 30일 우리나라와 UAE 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는 전날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명시됐다. 양국 정상은 특히 공동선언에서 이번 국민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CEPA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민 방한한 모하메드 UAE 대통령 최고 예우

용산 상공에 뜬 블랙이글스 지상엔 아크부대원 400명 도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8~29일 국민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

5월 28일 모하메드 대통령이 탑승한 UAE 대통령 전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 ‘F-15’ 4대가 호위 비행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을 만난 윤 대통령은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이어 두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다. 학연화대무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학무(학춤)와 연화무(연꽃춤)를 차례로 추는 전통 궁중 무용이다.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를 좋아하는 UAE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공연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5월 29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열고 국민 방한한 모하메드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UAE 국기 색깔 중 하나인 녹색 넥타이를 댔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이 의장대를 사열하기 위해 잔디마당 단상으로 이동하자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8대가 비행을 시작했다. 블랙이글스는 빨간색, 녹색, 흰색, 파란색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양국 정상의 이동 방향에 따라 비행을 이어갔다. 예포 21발도 발사됐다.

공식 환영식에는 UAE에 다녀왔거나 파병 훈련 중인 아크부대원, 전통 의상대와 취타대, 어린이 환영단도 참여했다. 한국과 UAE의 협력을 상징하는 아크부대에 다녀왔거나 파병 준비 중인 장병 400여명은 용산어린이정원 도로 양측에서 있다가 UAE 측 차량이 지나가자 차례로 거수경례를 했다. 아크부대의 도열이 끝난 후 전통 의상대 및 군악대 100여 명이 ‘아리랑’을 연주했고 환영단은 양손에 태극기와 UAE 국기를 흔들며 아랍어로 “앗살라무 알라이쿰(안녕하세요)”이라고 인사했다. 양 정상이 수행원들과 인사를 마친 후 대통령실 청사 내부로 향할 때 블랙이글스 편대가 다시 하늘에서 나타나 회오리 모양의 연기를 뿜으며 비행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민 방한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UAE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국민 방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가 5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민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축하 비행을 펼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UAE의 전폭적인 지지도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

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K**

강정미 기자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연 1조 5000억 국민·기업 부담 준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부과율이 단계적으로 1.0%포인트(P) 인하된다. 항공권 발급 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은 3000원 줄어 들며 12세 미만 아동은 면제된다.

정부는 5월 28일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 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감면 규모는 연간 1조 5000억 원이다. 전력기금부담금 부과요율은 현행 3.7%에서 단계적으로 1%P 인하여 7월에 3.2%로, 2025년 7월 2.7%로 낮춘다.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을 30% 인하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1만 원에서 3000원 인하된 7000원으로 내린다. 면제 기준은 현행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의 경우 현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 동안 1.0%에서 0.5%로 50% 인하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반기당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려간다. 중소기업의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늘릴 계획이다.

껌 제조업체에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소비량 감소와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선은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은 10%로 인하한다.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원 조성비의 감면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차감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년 10월 1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 뉴스스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30일까지 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등을 통해 저소득층·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

부 ▲폭염 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기재해 권익위 누리집,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044-200-797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보훈 기부 활성화 위해 민간 기부금 모집 가능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과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기관의 명칭과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또한

기부금품은 ▲금융기관 계좌 입금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 및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보훈부는 기부자가 직접 금품의 사용 용도를 정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모집 비용을 제외한 기부금품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된다.

자판기 라면, 팝콘 등에도 ‘대장균·식중독균’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이 5월 2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

련됐다.

개정안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대장균, 식중독균 등 미생물 기준과 식품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개 품목이 새로 등재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와 대장균 등 미생물 기준이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식품에 적용된다.

수산물 원료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 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품근거가 확인된 쾡지가오리, 바리밴메이, 얼룩상어 등이 포함됐다.



2023년 4월 13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제69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업체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여름철 기상재해 대비 농축산물 수급 물가안정 총력

정부가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여름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주요 농산물 수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름철 기상재해에 취약한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약제 지원과 기술지도에 힘쓸 방침이다. 또한 7~9월 수급 불안 및 추석명절 수요에 대비해 봄배추 1만 톤과 봄



5월 2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배추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 광주 북구

무 5000톤을 비축하기로 했다.

여름철 기상재해로 인한 재배지 유실 등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 주도 준비한다. 배추가격이 연중 가장 높은 9월 중하순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6700톤 생산 규모의 여름배추 재배면적도 농협 계약재배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다.

열무의 경우 5월 기준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열무의 파종면적이 증가해 6월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농협·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여름철 주산지 작황을 점검하고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 재해 예방에 힘쓰고 불가피하게 재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가 재개되도록 재파종비, 출하장려금을 지원한다.

축산물 공급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여름철 재해 취약 농가에 현장 기술 등을 지원하고 축산물 할인행사 등 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촉진을 장려할 계획이다.

교육데이터 개방 확대 3년 지난 수능 자료도 연구목적 공개

교육행정데이터의 개방 범위가 넓어져 교육 분야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교육부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 및 9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앞으로 교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국가수준 학업성취도 등 기존의 심사용 데이터를 최소화해 가능한 한 개방용 데이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학업성취도와 수능 데이터 중 3년이 경과한 전수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다만 모든 정보는 학교명과 학생 성명 등 개인정보가 따로 제공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된다.

교육부는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학원·독서실·기원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이 폐지돼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편의시설

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동물병원, 동물위탁관리업, 직원훈련소, 기원, 장의사 등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연천·포천·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합동 특별점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21일 강원 철원군 농장에서 41차 ASF가 발생해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져 자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 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보관·처리 등 확산 방



경기 평택시 안중읍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대책 추진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을 위반한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취약계층 냉난방비 걱정 덜게 에너지바우처 시행

취약계층에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경우,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된다. **☑**

장가현 기자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

‘스마트초이스’ 개편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정보까지 비교해볼 수 있어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는 바뀌도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조건 저렴한 요금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평소 음성 통화량이 많은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지, 인터넷 결합이 돼 있는지 등 자신의 사용 패턴에 따라 적합한 요금제가 따로 있어요.

‘스마트초이스’는 나에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이에요.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최적의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용자들이 통신사 간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비교하고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최근 스마트초이스를 개편했답니다.

스마트초이스 누리집(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요금제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받거나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특히 최적의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저렴한 요금제를 쓰면서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스마트초이스는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의 누리집 링크를 추가하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요금제 현황을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개선됐어요. 단말기를 구매할 때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단말기 지원금’과 매달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초이스에서는 통신사별 단말기 지원금을 조회하고 월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는 게 가능해요.

요즘 OTT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동안 통신사 결합상품을 찾고 비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마트초이스에서는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결합 요금제를 비교하기도 좋아요. ‘요금제 찾기→OTT 결합상품’ 메뉴에서 먼저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와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밖에도 ▲통신 미환급액 조회 ▲분실 단말기 조회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보 조회 등도 가능하니 스마트초이스로 똑똑한 통신생활 해보자고요! ☑

5G 요금제, 다양해졌어요!

요금제 개편내용을 확인하고,
내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자세히 보기

사례중심 통신소비 가이드!

통신서비스 이용 중에 고려사항을
상황 별 사례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OTT 결합상품 안내

OTT 서비스와 결합된 이동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상품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스마트초이스 누리집 개편 권무의

학생건강검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건강검진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5월 2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학생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일부 학교에서 검진기관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검진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학생건강검진 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연계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학생건강검진제도를 건보공

단에 위탁해 건강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현행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항목은 근골격·눈·귀·코·목·피부·구강 등 10개다.

학생검진 개선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사항 외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오남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결과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돼 각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참고할 수 있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할 뿐 아니라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www.nhis.or.kr)에서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검진자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통합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추진단은 올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19개 학교,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 확대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K**

장가현 기자

서울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어린이가 구강관리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뉴시스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가 여름철 폭서기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복지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폭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입수된 45종의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름철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 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폭서기 복지 위기가구 약 2만 명을 집중 발굴한다. 7월부터는 기존 45종의 위기징후 정보에 집합건물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해 46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을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한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 누구에게나 복지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또 어르신과 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

별로 맞춤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 5만 8000곳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양곡비 38억원, 부식비 253억 원, 노일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 2만 6000명가량을 추가 지원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중인 27만 가구는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또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4만 6000곳의 운영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늘리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이밖에 끼니를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급식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를 위해서는 중앙·지자체·관계기관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한다. 무더위쉼터와 응급잠자리,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관리도 실시한다. 7~8월 폭염 기간에 전국 경로당 6만 9000곳과 미등록 경로당 1676곳에 월 17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2만여 곳과 의료기관 79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시설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

서경리 기자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023년 7월 2일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 더위를 식혀주는 쿨링포그(안개형 냉각수)가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호국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1인 항공료 최대 5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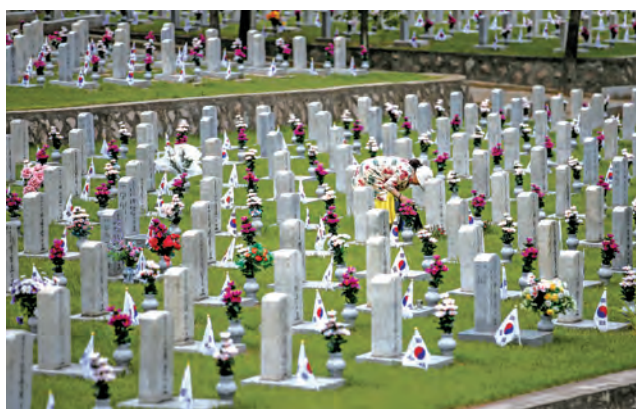
국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련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에게 항공료·열차운임·문화시설 할인, 무료택배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먼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제주항공·티웨이항공·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는 예년과 같이 6월 한 달(탑승일 기준) 동안 국내선 항공료 할인 대상과 할인을 확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훈 대상자(수권 유족 포함)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국내선 항공료를 30~50% 할인하고 에어부산을 포함한 나머지 항공사도 보훈 대상별로 30~50%까지 항공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년과 같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무임승차를 지원한다. 무임승차 지원 대상에는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보훈 보상 대상자 등 국가유공상이자와 그 동반가족 1명, 국가유공상이자 유족·독립유공자 유족·전몰군경 유족·순직군경 유족(수권자 1인)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은 '나라사랑 택배' 서비스를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은 CJ대한통운 고객센터(1855-2818)로 유선 접수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기 쉬운 농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음식물은 접수가 불가하며 개인당 1일 세 상자 한정이다.

에버랜드는 6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 입장 및 동반 1인 50% 감면 혜택을, 서울남산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하이원리조트(강원 정선)와 하이원 추추파크(강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사진은 2023년 6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시민이 전사자 묘비에 꽃을 놓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

삼척)에서도 객실, 호텔, 워터월드 등의 시설 할인을 지원한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은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에게 힐링야경투어, 해상시티투어 무료 탑승(동반 4인은 50% 감면)을 제공한다.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도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과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5성급 호텔인 원덤그랜드부산도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객실 및 레스토랑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강정에 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일상에서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혜택 제공에 동참해준 각 기관과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사회공동체가 함께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살아 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

강정미 기자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세계에 제대로 알린다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콘셉트로 한국을 해외에 널리 알린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국가 홍보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위키피디아 등에서 유통되는 한국에 대한 정보 수준을 정부 차원에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해외홍보 추진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 2019~2023년 국가이미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외국인이 78.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K-콘텐츠 수출액 역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인 132억 달러를 달성해 긍정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국제적 위상

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 전략과 방향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월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하고 해외미디어 협력 및 분석, 홍보 콘텐츠 제작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중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혁신·창의·친근·신뢰·성장·안전 국가이미지 구축

이번 전략에는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재편에 대응하고 해외에서 한국을 접촉하는 주요 경로인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한국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3대 추진전략과 11개 추진과제로 세분화됐다.

관련 기관과 콘텐츠, 메시지 등에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홍보 콘텐츠는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적인’, ‘창의적인’, ‘친근한’, ‘신뢰할 수 있는’, ‘성장하는’, ‘안전한’ 등 6가지 이미지를 기반으로 홍보 메시지와 이야기를 개발한다.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국가홍보전략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담은 홍보 콘셉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정책 발표, 국제 행사, 기업 활동 등에 전 방위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제와 선도적인 담론을 발굴·지원한다. 의제 분석범위를 외신뿐 아니라 해외 연구소·국제기구·누리소통망(SNS)에 유통되는 정보로 확대해 국제사회의



지난 3월 31일 한복을 입고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 뉴시스

전반적인 관심과 현안을 파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유통한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2025년에는 부처별 정책결정자에게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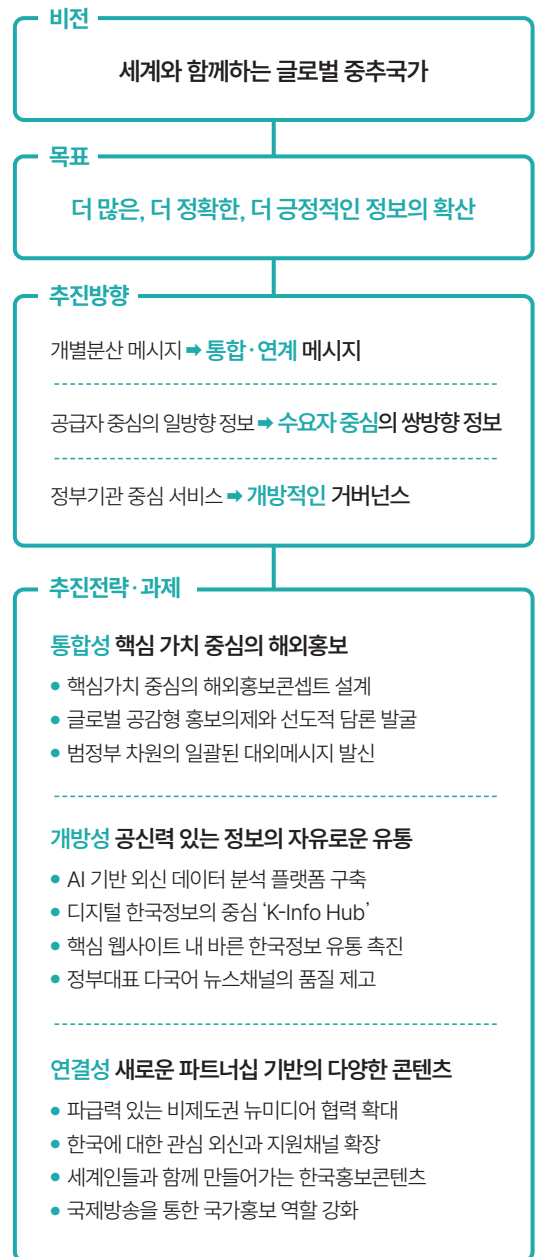
외국인 수요 맞춤형 양질의 정보 제공

인터넷 백과사전인 영문 위키피디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 누리집, 관광 웹사이트, 교과서 등에 유통되는 대한민국 관련 정보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외국인 수요 맞춤형으로 한국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플랫폼 'K-인포허브'를 구축한다. 국가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기관들은 물론 해외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운영해 해외에서의 한국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1인 미디어 시대에 맞춰 한국 홍보를 위한 영상·이미지·텍스트 등 무료 소스를 제작해 누구나 쉽게 한국 홍보 콘셉트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해외홍보는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전환한다. 세계 시민, 전문가, 주한 외국인 등 민간과의 협력 비중을 높이고 분야별 국제적 영향력이 높은 인물루인서와 대안 언론으로 기능하는 디지털 전문매체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통적 소통대상인 외교단과 외신은 물론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우리나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이들과 해외홍보 연계망을 구축한다. 이들은 '한국생활 지침서' 등 수요

디지털 대전환시대 해외홍보 비전 및 추진전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자 맞춤형 한국 정보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등 해외홍보 자문과 활동 과정에 함께할 계획이다. 또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해 '아리랑TV'가 한국의 대표 국제방송이자 해외홍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K]

장가현 기자

플랫폼 종사자

5월 14일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는 '플랫폼 종사자(platform workers)'의 노동환경이 조명됐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의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과 더불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또는 알선받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원·대리 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 클라우드 노동(플랫폼을 매개로 한 과업을 대규모 익명의 노동자에게 배분하거나 더 작은 과업으로 쪼개는 형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80만 명으로 2021년 대비 20.3%(13만 4000명) 늘었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성장에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플랫폼 종사자의 확산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전체의 50% 이상 또는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는 주업형 ▲수입이 전체의 25~50% 또는 주당 10~20시간 일하는 부업형 ▲플랫폼 일자리 수입이 25% 미만 또는 주당 10시간 미만 일하는 간헐적 참가형으로 분류된다. 2022년 조사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중 주업형은 57.7%, 부업

형은 21.1%, 간헐적 참가형은 21.2%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률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46.4%, 36.5%였으며 응답자 가운데 63.4%는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결과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시사했다. 위탁계약의 표준화와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정착,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직종별 서비스 요금의 세분화 및 표준화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주목했다.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라며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정부와 원청기업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를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플랫폼 기업, 유관단체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도 뒷받침한다. 

이근하 기자

주업형이 57.7%

휴게시설 등

노동환경 개선해야

글짓기, 포스터, 만화에 자신 있다고?

내 끼와 재능이 세금을 만났을 때!

친구들아!
세금을 표현해줘!

나도 베넷
(베스트댓글) 걸렸네.
나 글짓기에 재능 있나 봐!

난 만능소녀!
글짓기·포스터·만화
모두 도전할 거야!

2024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에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나만큼 만화로 세금을
잘 설명할 수 없을걸.
나는야 준비된 만화가!

친구들아,
내가 만든 포스터 속
따뜻한 세금이야기
기대해 줘!

공모 개요

- 응모 기간 2024년 3월 4일(월) ~ 6월 30일(일)
- 결과 발표 2024년 9월 2일(월) 예정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
- 시 상 2024년 9월 중 해당 학교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실시
- 제 출 처 가까운 세무서 운영지원팀에 방문·우편 제출
- 문 의 처 국세청 누리집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어린이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관할 및 담당자 연락처 공지

공모 내용

- 공모 분야 글짓기, 포스터, 만화 3개 분야
- 응모 대상 전국 초·중·고교생 및 동 연령대의 청소년
- 공모 주제
 - ①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따뜻한 세금이야기
 - ② 성실납세의 중요성 및 국세청의 역할
 - ③ 국세청(세무서) 방문체험 및 세금교실 체험 등
- 작품 규격
 - ① 글짓기 : 200자 원고지 20매(초등부는 10매 내외)
또는 A4용지 5매(초등부는 3매 내외)
※ 세무서 운영지원팀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 제출 권장(유선 문의)
 - ② 포스터 : 4절지(39cm x 54cm) 1매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③ 만 화 : 4절지(39cm x 54cm) 1매
(컷수 제한 없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작품 뒷면에 응모 분야, 제목, 학교명, 학년, 이름,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한 작품 형태나 규격이 공모내용과 다를 경우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시상 내역

• 국세청장상 총 72명(상금 2,040만 원 수여) (단위: 명, 만 원)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인원	상금
글짓기	초등부	2		4		6	
	중등부	1	각50	2	각30	3	각20
	고등부	1		2		3	
포스터	초등부	2		4		6	
	중등부	1	각50	2	각30	3	각20
	고등부	1		2		3	
만 화	초등부	2		4		6	
	중등부	1	각50	2	각30	3	각20
	고등부	1		2		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어린이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



국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바로가기
(다들 고교생!)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출범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0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간판석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R&D), 산업 진흥 등을 담당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분야는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출범을 통해 “2027년까지 우주 관련 정부 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과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중점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 및 국가 주력산업화 추진

이날 기념식에 이어 우주항공청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렸다.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은 이 자리에서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로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미래항공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선 ‘우주수송’ 분야에선 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X)의 ‘팰컨9’과 같은 재사용발사체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별도의 제2 우주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주수송 기술, 발사장, 제조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 확보를 통한 누리호 반복 발사와 성능 개량에 들어간다.

인공위성 부문에서는 위성 개발·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학 임무부터 사회문제 해결, 공공 서비스 개선까지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의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우주광통신·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기반을 구축해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달·화성을 비롯한 우주 전반으로 탐사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을 수립하고 달 착륙선 개발과 달 기지 확보 등으로 달 관측·탐사에 나선다. 나아가 화성과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임무를 발굴한다. 미래항공 부문에서는 항공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를 혁신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미래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주도권 확보한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모빌리티(AAM)와 첨단항공엔진 등을 개발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기술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로 세계 생산 기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펀드에 투자하고, 경남과 전남·대전으로 이어지는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성에 나선다.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

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제도 장비를 추진한다.

우주산업·안보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산업육성 등을 강조해왔다. 우주항공 산업은 앞으로 세계 질서와 경제를 주도하게 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분야로,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관련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을 목표로 역대 정부 처음으로 우주항공청 신설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2022년 11월에는 직접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세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청은 급물살을 탔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는 하위법령 및 청사 부지 마련, 예산·전문 인력 확보, 연구기관 이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우주항공청이 동지를 틔 경남 사천은 국내 유일한 항공기 제작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자리한 곳이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 매출액의 50%가 이 지역에서 발생할 정도로 관련 산업이 집적돼 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은 그간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모아 국제협력 및 우주안보 등을 총괄하는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정책 수립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 ▲우주항공 산업 육성 ▲민·군 협력 ▲우주 안보 ▲국제협력 도모에 나선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향후 목표로 제시했다. [K]

조윤 기자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K-공감'은 윤석열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를 ▲개혁 ▲경제 ▲사회 ▲미래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국정목표로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우주강국 도약, 창의적 인재 육성, 탄소중립 실현 등에 나섰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꿈과 도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약의 발판도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해온 미래 분야 성과를 알아본다.

디지털 대항해 시대,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합니다!

대한민국 초거대AI 도약

2023. 9. 13. (수)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 미래전략기술 육성

-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등 3대 미래기술 육성
- 12대 국가 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 10대 국가 전략기술 프로젝트 사업 선정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반도체·디스플레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 마이크로 LED 조기 상용화 	인공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자원 소모량 절감 • 인공지능반지능 원천기술 확보
첨단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제조 효율 혁신 • 신물질 기반 치료제 	양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용 양자컴퓨터 및 양자네트워크 구현 • 양자센서 5대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우주항공·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사체·위성·달착륙선 기술 고도화 • 우주부품 자립화 	차세대 원자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성 제조 기술 확보 • 비경수형 원자로 기술 고도화
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수소 대량 생산 기반 구축 • 안정적 수소 저장·운송 기술 확보 	이차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튬이온전지 상용 기술 확보
차세대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대(6G) 기술 개발 및 표준특허 선점 	사이버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보안 기술 적용
첨단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자율주행(2027, Lv4) 대비 인공지능 표준·인증 선점 	로봇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수준 자율로봇 기술 고도화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 외교까지 좌우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기술 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역량을 집중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분야별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해왔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 제조 ▲양자(퀀텀) 등이다.

정부는 또 첨단기술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기술주권 확립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해 2023년 9월부터 시행했다. 특별법

은 전략기술의 신속·과감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R&D), 분야별 연구, 인재양성의 거점이 될 특화연구·특화연구기관 지정, 전략적 국제협력 등 기술 주권을 위한 종합 패키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을 완성했다. 전략 로드맵은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관련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범부처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인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10건도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공동으로 추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시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6세대(6G)·달착륙선·도심항공교통(UAM)·차세대 이차전지가 2024년 개발에 들어갔다. 양자기술 플래그십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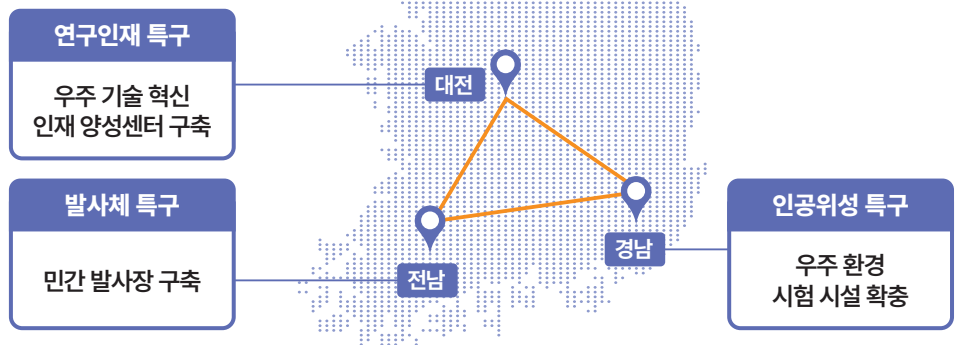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도 집중 육성한다.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기술은 글로벌 경제·사회·안보 패러다임을 급속하게 변화시킬 핵심 전략기술로 세계 각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통해

2030년까지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선도적 시장을 열어갈 기술별 가치사슬의 고도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2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 우주항공청 개청 (2024년 5월 27일)
-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 누리호 3차 발사, 다누리호 달 탐사 성공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2023년 5월 25일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톤급 이상 위성을 우주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세계 7번째 국가로 도약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정부는 앞으로 누리호 반복 발사를 2025년 4차 발사, 2026년 5차 발사, 2027년 6차 발사 등 세 차례 더 실시해 성능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누리호 발사로 확보한 핵심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를 2032년까지 개발해 달까지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다.

우주산업은 장기·대형 프로젝트가 대부분으로 주로 정부가 우주개발의 주된 자본

공급원이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민간업체들이 진입 가능한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민간 투자자와 기업가적 활동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우주산업이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정부도 우주발사체 개발이 우주산업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리호 반복 발사와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과정에 민간기업을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시켜 민간 주도의 우주경제를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남 사천, 전남 고흥, 대전을 각각 우주산업의 거점센터로 삼아 핵심 분야별 기능을 집적화하려는 계획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되고 있다. 사진 뉴스

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총 8년간 6000억 원 내외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우주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인 발사체(고흥), 위성(사천), 연구개발(대전)을 3곳으로 나눠 거점센터를 운영해 위성 제작부터 발사까지 클러스터 내 역량으로만 100%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5월 27일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2024년 주요 임무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를 설정하고 99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

통상자원부 등이 맡아오던 관련 업무도 우주항공청이 전담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을 2000개 이상 육성하고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420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45년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3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확대

- 청년층 대상 공공주택 공급
- 청년도약계좌 대상 확대
-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윤석열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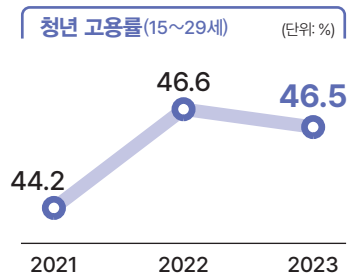
먼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 10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 이어 2023년 1월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통해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34만 호, 공공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이 가능한 장기저리 전용 모기지를 함께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2022년 12월 첫 뉴·홈 사전청약 결과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을 약 1만 호로 확대하고 3회(6·9·12월)에 걸쳐 공모를 실시했다. 특히 2023년 사전청약 접수 결과 매회 20~30대가 전체 접수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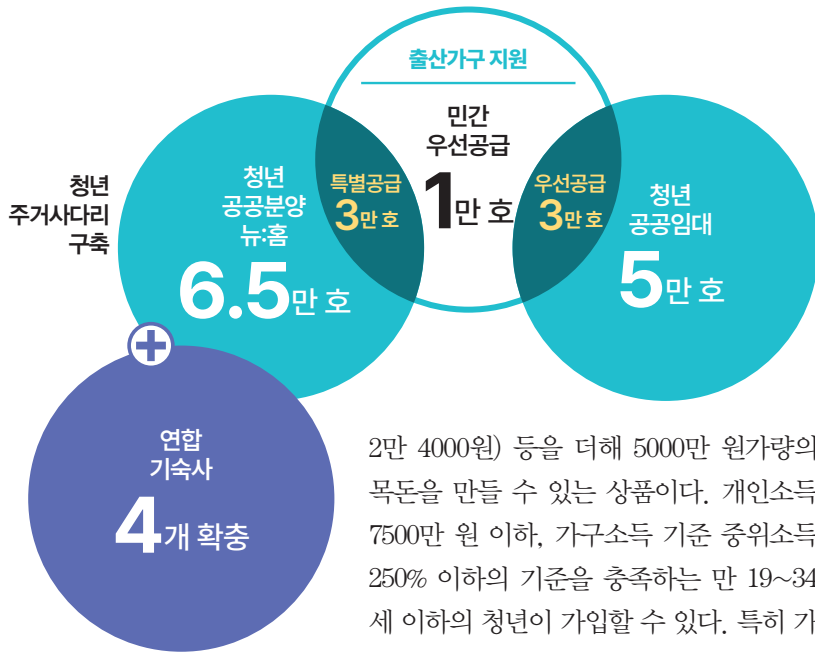
75% 내외를 차지했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약 45.3대 1을 기록했다.

또한 그간 청약에 있어 '페널티'로 작용했던 결혼이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지난 3월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민간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에서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청약 대상자(배우자 상대방)는 특공 청약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대상자 본인은 특공 청약에 나설 수 있다. 공공주택 특공 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은 기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공의 자녀 기준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2023년 6월에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청년 일경험 사업 확대





2만 4000원) 등을 더해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 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가 구소득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 3월부터 기존 180% 이하에 서 250% 이하로 기준을 확대했다. 청년도 약계좌는 2023년 12월 51만 명에서 2024 년 3월까지 105만 9000명이 가입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책도 강화했다. 2024년 2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자립 지원 정책 대상자를 기존 18세 이후 보호 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 종료자까지 확대했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2022년 월 35만 원에서 2023 년 40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4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추진

- 녹색인프라 수주·수출 20조 5000억 원 달성
- 무공해차·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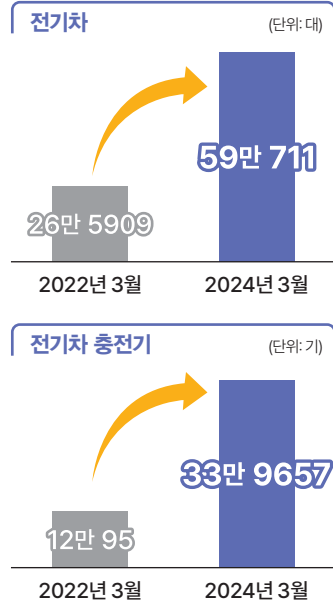
세계는 탄소중립 경제구조로 빠르게 전 환하고 있다. 세계 경제 규모의 90% 이상 을 차지하는 130여 개국은 이미 탄소중 립을 선언했고 탄소비용을 수입품에 부 과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CBAM), 그린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CFE) 확산 등 관련 대책 또한 빠른 속도 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 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 립 달성을 선언하고 그 중간목표인 2030 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 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정부는 먼저 2023년 4월 ‘제1차 국가 탄 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을 확정했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 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

략도 마련했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 단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 장 및 활용(CCUS) 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 도 담겼다. 정부는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2023부터 2027년까지 5년간 89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전인하는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추진하 고 있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합 리적 가격의 고성능·친환경 전기차 중심 으로 구매 지원이 확대되도록 보조금 지 원체계를 개편하고 전기차 사용자가 한 번의 회원 가입으로 전국의 충전기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자(86개 사)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무공해 차 보급목표를 2022년 8~12%에서 2023 년 11~15%로 상향하고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신규 차량 구매·임차 시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강화(2022년 80%→2023년

무공해차·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



100%)했다. 그 결과 2023년 누적 약 60만 대(전기 56만 5154대, 수소 3만 4405대)를 보급했다. 증가하는 무공해차의 운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인프라도 확충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2023년 누적 30만 5309기로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2대 수준이다. 수소충전소는 300기가 구축됐다.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녹색 전환하려는 노력도 이어졌다. 녹색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창업·성장·도약) 맞춤형 집중 지원(301개사, 585억 원)을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했다. 녹색기업 육성과 산업계 녹색전환 유도를 위해 775억

원 규모의 민·관합동 펀드를 조성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녹색 중소·벤처기업 18곳에 237억 원을 투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유망 녹색산업의 육성·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00조 원의 수출·수출 효과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기 위한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을 발족했다. 산업계, 수출금융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해 정부와 산업계가 원팀으로 세일즈를 전개한 결과 2023년 녹색산업 수출·수출 20조 5000억 원을 달성했다.

5 교통혁신 통한 격차 해소

- 출퇴근 30분 GTX 시대 본격 개막
- K-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비 부담 절감(20~53%)
-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 (2024년 1월)

수도권 인구 중에는 긴 이동시간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직장인은 출퇴근에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을 쓴다. 혼잡한 교통 상황에 여러 교통수단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교통지도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러한 불편과 교통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속도 ▲주거환경 ▲공간 분야를 혁신하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내놨다.

속도 혁신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핵심이다. GTX는 수도권과 도심의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해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고 국민의 교통복지 실현하고자 하는 광역 철도망이다.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

됐고 12월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전 구간 완전 개통은 2028년에 완료된다. 평소 80분 걸리던 수서~동탄 구간 이동이 19분으로 단축됐고 운정~서울역 구간도 70분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노선은 2028년,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GTX-B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동시에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2기 GTX 시대도 열린다. A노선은 기존 운정~동탄 노선을 연장해 평택 지제까지 20.9km를 잇고 B노선은 마석에서 춘천까지 55.7km를 연장할 계획이다. C노선은 북쪽으로는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9.6km를 연장하고 남쪽으로는 수원에서 충남 아산까지 59.9km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노선은 인천과 김포에서 출발해 서울을



지나 남양주 팔당·강원도 원주까지 이어진다. E노선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남양주 덕소로 연결된다. F노선은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 구간부터 우선 추진된다.

지방권에도 수도권 GTX와 같은 x-TX

가 도입된다.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칭 CTX)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 철도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충북도청과 청주공항 등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100분 걸리던 것이 53분으로 줄어들게 되고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 간 60분 걸리던 시간이 15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주거환경 혁신에도 나선다. 신도시 교통을 개선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교통 불편지역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혼잡률 210%에 이르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혼잡 완화 대책 수립을 최우선으로 한다. 철도와 도로 지하화로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공간혁신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6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본격 추진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등 17개 권한 지방이양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52만 명 참여, 650억 원 모금)

2010년 전체의 49.3%였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50.2%로 증가했고 2023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50.7%)이 수도권에 거주할 정도로 수도권 일극체제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증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행정기

관, 17개 시·도와 함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2023년 10월 확정했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4대 특구 본격 추진

기회발전특구

소득세·법인세 등
인센티브 마련 및 시행
(2024년 3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31개 선정·발표
(광주, 인천 강화 등)

도심융합특구

5개 광역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문화특구

문화도시 예비사업 13곳
조성 계획 승인
(대구 수성구, 경기 안산시 등)

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서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국비 24조 6000억 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 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월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

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 구역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그린벨트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2023년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과 답례품 등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실적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000만 원, 기부건수는 총 52만 5000여 건이었다. **K**

강정미 기자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755억 추가 투입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77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원한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5월 29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와 같은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에서 1만 1395명의 간호사가 사업에 참여 중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참여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잇따라 열려

한편 27년 만에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됐다. 5월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이로써 전국 의대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이에 대해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며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당국에도 “의료개혁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며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 100일째인 5월 29일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산하 전문위원회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등 4개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5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위가 다룰 과제로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투자 강화, 의학교육의 질 개선 등을 선정했다. 전공의의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연속 근로시간도 36시간에서 단축하는 방안 등이다.

5월 2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의 제2차 회의도 열렸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을 심층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 등이 안건으로 선정됐다.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으로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차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을 바탕으로 의료공급, 의료이용, 진료협력, 보상 및 평가 등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등의 기준과 전환에 대한 보상방안이 제시됐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등 인력운영 혁신을 통해 병상 가동을 회복시킨 사례를 전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론적으로 전문위원들은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를 의료정상화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투자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안정화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기회로

이처럼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하고 경중·외래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약 38만여 건, 병원급 비대면진료는 약 2000건이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확대가 경중·외래환자를 분산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4월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하락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5월 24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제19회 '입양의 날' 대통령상 수상 전성신 씨

“입양은 숨길 일도 대단한 일도 아냐 가족이 더 행복해지는 하나의 방법일 뿐”

전성신 씨는 테니스 선수인 딸 김별 양을 위해 매일 차로 학교와 훈련장을 함께 오간다. 초등학교 6학년인 별이는 최근 열린 청소년대회에서 준우승을 할 만큼 기량이 뛰어나다. 전 씨는 그런 딸을 힘닿는 데까지 지원해줄 생각이 다. 그는 “별이는 생후 9개월에 걸음마를 땔 만큼 운동신경이 좋다. 가족 중 아무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별이는 특별한 재능을 지닌 만큼 더 잘 도와주고 싶다”고 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별이는 “엄마는 정말 운동을 못한다”며 장난을 쳤다. 두 사람은 “하지만 MBTI(성격유형검사)도 비슷하고 닮은 점이 많다”며 서로를 보며 웃었다.

모녀는 2013년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됐다. 전 씨는 생후 50일 된 별이를 가족으로 맞이했고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돼라’는 뜻으로 ‘별’이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당시 두 명의 초등학교 자녀가 있었지만 전 씨 부부는 주변의 입양가정이 무척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별이 역시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친구들에게 “난 입양된 아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입양은 특별한 것도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것이 이 가족의 생각이다.

물론 주변에는 이들을 평범하게 바라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전 씨가 8년째 반편견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다. 전 씨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유아·청소년 시설을 찾아다니며 입양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는 데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강연횟수만 700회에 이른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9회 ‘입양의 날’ 행사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

을 받았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한 해에 수천 명의 양육포기 아동이 발생한다. 원 가정에서 양육되지 못하는 아이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양이다. 전 씨 가족은 더 많은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한 방법으로 입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언론에 가족사진을 당당히 공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가정사가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가족들은 “우리 얼굴이 신문에 나오는 거냐”며 유쾌한 일로 받아들인다.

별이의 테니스 훈련을 몇 시간 앞두고 한 카페에서 모녀를 만났다. 두 사람은 내내 ‘껌딱지’처럼 붙어 서로의 곁을 지켰다.

두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입양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첫째·둘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난 뒤 아이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자녀가정의 모습을 보며 참 부러웠거든요. 그때 유독 입양가정들이 눈에 띄었어요. 주변에 몇몇 입양가정이 있는데 무척 행복해보였어요. 입양가정모임을 통해 유대관계를 갖고 생활하는 것도 좋아보였고요.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보다 보니 출산이 아닌 방법으로도 가족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다른 식구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모두 처음부터 입양을 찬성했어요. 만약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입양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입양 심사 과정에서



2013년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전성신 씨와
김별 양. 전 씨는 8년째
반편견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입양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는 데
힘쓰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전성신 씨네 다섯 식구의 모습. 가족 모두 별이의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으며 입양을 가족이 되는 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사진 전성신

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입양에 동의하는지도 살피기 때문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첫째·둘째 아이는 입양 전 별이를 접견할 때나 집으로 데려올 때도 항상 함께 다녔어요. 입양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요.

그럼에도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내가 생물학적으로 낳은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똑같이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의지로 극복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었죠. 실제로 별이를 데려오고 나니 세 자녀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정말 다르지 않았어요. 선배 입양가정이 말씀해주신 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생각했죠.

별이를 키우는 일은 어땠나요?

별이가 크면서 말을 안 듣기도 하고 언니, 오빠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땐 속이 상했죠. 하지만 이건 입양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모든 육아는 매일이 힘듦의 연속이죠. 입양도 육아도 꽃길만 바라선 안 돼요. 희로애락을 함께 겪으면서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죠. 물론 입양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어려움이 입양 아이에게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육아에서 오는 것인지를 잘 구분해야 해요.

입양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가족 구성원이 많아지니 웃을 일이 그만큼 더 늘었어요. 별이는 대학생인 언니, 오빠와도 세대 차이 없이 잘 지내

“입양도 출산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대단할 게 없어요. 이 또한 편견이죠. 그저 자녀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요. 특히 시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감정표현이 없으신 분인데 별이를 데려오는 날엔 맨발로 나와 환영해주셨어요. 이후 시누이도 자녀를 두 명이나 입양했죠. 결혼 후 오랫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 걱정했는데 별이를 본 뒤 6개월 만에 입양가정을 이룬 거예요. 여성이라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출산을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던 시어머니도 지금은 무척 행복해하세요. ‘입양 대가족’을 이루니 집안에 편견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다들 입양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다고 생각해요.

별이에게 입양 사실을 처음 알린 건 언제인가요?

별이가 여섯 살 때쯤 임신한 여성을 보고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냐고 묻더군요.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려운 사정으로 더 이상 별이를 기를 수 없어 입양을 통해 엄마 아빠가 될 데려왔다고 말해줬어요. 언니, 오빠는 출산으로 가족이 됐고 별이와 사촌 형제들은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된 거라고 했죠. 가족이 되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후 입양에 관한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입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어요. 학령기를 전후해 이러한 ‘입양 말하기’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별이는 친구들이 묻기 전에 스스로 입양 사실을 털어놓을 만큼 입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별이는 “거짓말 아니냐며 농담으로 넘기는 친구도 있고 깜짝 놀라는 친구도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반응이 신기하다”고 했다. 엄마와는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에 전 씨는 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노력한다. 그가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주신 분을 만나보고 싶다. 그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물으면 별이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 가족과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답한다.

반편견 입양교육에 열심인 이유가 있나요?

별이에게 입양사실을 털어놨을 때 상처 되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건 몰라서 그런 거니 잘 가르쳐줘야 한다고 얘기해줘요. 강연 활동을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죠. 입양에 대한 편견은 입양을 제대로 몰라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하러 다니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가장 놀란 건 아이들조차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별이가 입양이라는 것을 알면 슬플 것 같다”고 말해요. 입양에 대해 이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이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해주면 “별이가 행복해보인다”고 하죠. 입양은 불행한 일도, 숨겨야 하는 일도 아니라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편견은 더 공고할 텐데요.

입양아에게도 여전히 낳아준 부모를 ‘친부모’라고 칭하는 등 우리 사회는 혈연중심주의가 무척 강해요. 입양한 순간 아이의 친권은 입양부모에게 있는 건데요. ‘(친)양부모’, ‘(친)생부모’라고 부르는 게 더 바람직해요. 또한 많은 사람이 입양을 바라보는 이중잣대를 갖고 있어요.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학대가 아닌 입양에 초점을 맞추죠.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 중 입양가정에서 벌어진 일은 1% 미만인데도요. 반대로 입양한 사실을 밝히면 “정말 좋은 일 하셨다”, “대단하다”고 말해요. 출산할 때 자연분만했다고 더 대단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입양도 출산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대단할 게 없어요. 이 또한 편견이죠. 그저 자녀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봐주면 좋겠어요.

한 해 발생하는 양육포기아동이 수천 명이라고요.

양육포기아동은 2022년에만 2289명에 이르러요. 반면 2023년 국내 입양은 150명에 불과해요(해외 입양 79명). 부부가 입양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입양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 거죠. 물론 아이는 원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최선이예요. 정부는 최대한 원 가정에서 양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입양지원도 늘리는 투트랙 정책을 펼쳐야 해요.

저출생 시대에 입양은 더욱 아득하게 보입니다.

저출생 문제와 입양은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어요. 다자녀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저의 마음이 입양으로 이어졌듯이

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마련돼야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입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입양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녀를 키우는 것, 누군가의 일생을 책임지는 것은 큰 결심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 과정에서 자녀가 내가 직접 낳은 아이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양육을 할 수 있다는 결심이 섰다면 입양은 용기 있게 결정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별이는 지난 어버이날에 “엄마 덕분에 테니스 선수로 맘껏 활동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엄마의 바람은 지금처럼 별이가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뿐이다. 전 씨는 “별이가 조금 더 자라 지금과는 다른 인생의 고민을 할 때에도 변치 않고 아이의 곁을 지켜줄 것이다. 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존재로 서 있겠다”고 말했다. **K**

조윤 기자

공적 입양체계 개편

국내 입양 활성화 위해 입양 전 과정 국가가 책임

보건복지부는 5월 10일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공개하고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뤄져온 입양 관련 절차를 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해 아동과 양부모를 결연하고 입양가정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외 입양은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해나간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예비 양부모 교육 과정 수강을 지원하고 국내 입양이 어려운 24개월 이상의 아동이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 입양을 희망하는 예비 부모들은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 먼저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배려한다. 아울러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출생통보제’와 임신부의 익명 출산이 가능하도록 한 ‘보호출산제’는 오는 7월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번호(1308) 등을 마련해 원 가정 양육을 최우선 지원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탄소만 쏙 잡아서 저장하고 활용하고 탄소중립 게임체인저가 왔다

“포집·압축된 이산화탄소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재활용된다. 광물화 기술을 활용해 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한 후 콘크리트 등의 친환경 건축자재 원료로 사용한다. 화학 기술을 통해 경질탄산칼슘(PCC)으로 전환, 제지 생산 공정의 도포제 등으로도 활용한다.”



김형자

<Newton> 편집장 출신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과학 칼럼니스트.
<구명으로 발견한 과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에 필수인 ‘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CCUS 기술을 추진해왔지만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이 컸다. 탄소중립의 ‘게임체인저’라 불리는 CCUS는 어떤 개념이고 어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까?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만 분리해 포집·압축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넷제로)으로 하는 탄소중립에 힘쓰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현재 배출돼 있는 탄소도 포집해 제거해야 한다. 그 역할을 해줄 일꾼이 바로 CCUS 기술이다.

CCUS는 구체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땅속이나 해양에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과 포집한 탄소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로 나뉜다.

먼저 등장한 기술은 CCS다. 하지만 모든 탄소를 저장하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가 제한적이었고 지진 등의 이유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탄소 저장만이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CCU가 등장했다.

그렇다면 두 기술을 더한 CCUS는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며 활용하는 것일까? 먼저 포집에 대해 알아보자. 이산화탄소의 포집은 연소 전, 연소 중, 연소 후, 3단계로 이뤄진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연소 후 포집’이다. 발전소, 제철소, 제조사 등 대규모 산업공정 시설에서 발생한 배기가스에서 흡착제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한다.

특히 연소 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서 없애는 ‘직접탄소포집(DAC)’은 대표적인 기술이다. DAC의 원리는 간단하다. 거대한 팬(선풍기)으로 공기를 빨아들인 뒤 이 중 이산화탄소만 물리·화학적으로 분리해 포집·압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기 속 낮은 농도(0.04%)의 이산화탄소를 선별해 포집하는 기술은 상당히 어렵다.

공기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4%, 이산화탄소 0.04% 등으로 이뤄져 있다. 두 개의 서로 같은 원자로 이뤄진 질소나 산소, 아르곤 같은 단원자는 적외선을 흡수할 수 없다. 반면 서로 다른 세 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된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 등은 적외선을 붙잡는 능력이 있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76%를 차지하는 물질로 100개의 공기 분자 중 1개만 있어도 지구 평균기온이 100℃에 이를 만큼 강력한 온실효과를 낸다. 게다가 공기 중에 최대 200년까지 머문다.

DAC 기술의 핵심인 거대한 팬에는 이산화탄소와 잘 결합하는 ‘아민’ 성분의 흡착제를 바른 필터가 장착돼 있다. 이 필터를 가열해 이산화탄소만 빨아들이고 흡수한 이산화탄소는 농축(압축)한 후 저장소로 보낸다. 이산화탄소가 걸러진 공기는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미국이 설치하려는 DAC 팬은 태양에너지로 움직인다. 이산화탄소 포집은 최종적으로 농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2년 DAC에 35억 달러(약 4조 65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미국 4개 지역에 DAC 허브 구축을 목표로 초기 연구에서 설계, 건설 운영까지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CCUS법 통해 지원 사격 나선 나라들

포집·압축된 이산화탄소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재활용된다. 광물화 기술을 활용해 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한 후 콘크리트 등의 친환경 건축자재 원료로 사용한다. 화학기술을 통해 경질탄산칼슘(PCC)으로 전환, 제지 생산 공정의 도포제 등으로도 활용한다. 또 탄산음료나 합성 항공유(연료)와 같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이러한 쓰임새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영구적으로 낮추는 방법이다.

한편 활용이 어려운 이산화탄소, 남은 이산화탄소는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깊은 지하나 해저에 안전하게 저장한다.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을 이용해 고갈된 유전·가스전 등 지하 800m 이상 깊이의 육지와 바다의 깊



스위스 클라임웍스가 운영 중인 ‘직접탄소포집’ 설비. 사진 Climeworks

은 땅속에 주입하거나 저장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CUS 기술 없이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CCUS 기술 기여도를 총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8% 수준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CCUS 기술과 탄소중립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거해 2022년부터 탄소 포집을 통한 감축 기업에 톤당 최대 85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3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법’에서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인허가를 단축하기로 했다. 호주도 2020년 ‘CCUS 통합법’을 제정해 배출권 수익을 보장하고 CCS 사업에 2억 7000만 호주 달러(약 2400억 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CCUS에 관한 법률(CCUS법)이 통과되고 2월 6일 공포돼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면서 저장사업 인허가 절차 역시 명확해졌다. 지형적 특성상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CCUS법이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CCUS 사업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정이 활발해질 것이다. [K]

MZ세대 2명 중 1명 “이직·직무 변경 고민하고 있어요”

현재 직업에 만족하나요?

(현재 재직 중인 MZ세대 참여자 517명 대상, 단위: %)



만족
38.5

보통
36.0

불만족
17.4

매우 만족 3.7

매우 불만족 4.4

진로에 대한 고민은 몇 살이 돼야 멈출까요? 한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것이 많은 사람의 중요한 목표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생각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고 해요. MZ세대가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 일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MZ세대의 솔직한 생각을 알아봤어요.

지금 내 직업에 ‘만족’하지만 회사는 떠나고 싶어

먼저 MZ세대의 직업 만족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MZ세대 517명 중 약 42.2%가 현재 직업에 대해 ‘매우 만족(3.7%)’ 또는 ‘만족(38.5%)’한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이 현재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드러나는 결과였는데요.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6.0%로 높게 나타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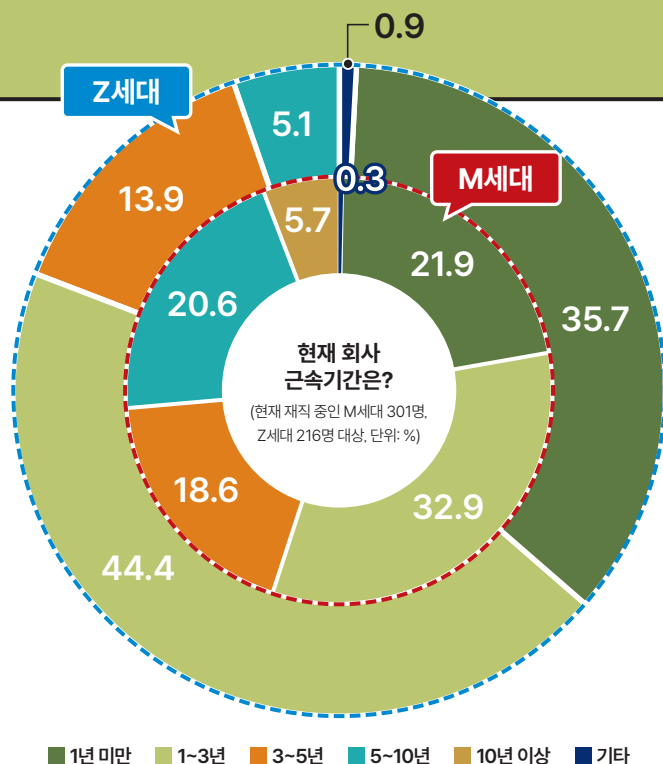
그런데 직업 만족도와 회사 만족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설문 결과가 있었어요. 이직을 고려하는지 아니면 현재 회사에 오래 남아 있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절반에 가까운 MZ세대가 자신의 직업에는 만족하고 있지만 회사에는 불

만을 느끼는 것으로 보여요. ‘현재 회사에서 몇 년 더 근무하고 싶다’는 응답은 25.9%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 전략적으로 이직을 준비하려는 계획일 수 있어요.

‘현재 회사에 오래 남아 있을 계획이다’라는 응답은 11.8%에 그쳤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한 보상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커리어를 성장시킬 기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보여요. MZ세대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나서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MZ세대의 한 회사 근속 기간이 길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MZ세대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몇 년째 근무하고 있는지 질문하며 자세히 알아봤어요. M세대와 Z세대의 사회생활 시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속연수를 각각 나눠 비교했어요.(M세대 301명, Z세대 216명)

먼저 Z세대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1~3년’이 44.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년 미만’이 35.7%를 차지했어요. 반면 ‘3~5년’은 13.9%, ‘5~10년’은 5.1%로 적었어요. Z세대는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첫 직장에 적응 중이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M세대의 경우 '1년 미만'은 21.9%, '1~3년'은 32.9%였어요. Z세대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M세대가 사회에 진출한 시기를 고려했을 때 현재 직장에서의 3년 이하로 근무한 비율이 54.8%에 달한다는 것은 M세대의 직장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편으로 '3~5년'은 18.6%, '5~10년'은 20.6%, '10년 이상'은 5.7%로 나타나 적지 않은 M세대가 한 직장에 오랜 기간 근무하며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려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도 가보고 싶어요

진로를 바꾸는 일에 대해 MZ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MZ세대에게 직무를 바꾸는 결정을 할 것인지 질문했어요. 설문에서 참여한 39.9%가 '직무 변경을 고려 중'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변경하고 싶지만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도 16.8%에 달했어요. 이 둘을 합하면 직무 변경에 대한 의지가 있는 MZ세대는 총 56.7%로 과반이 넘는다는 결과가 나와요.

진로 변경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문했어요. '진로 변경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대답한 MZ세대(293명) 중 42.3%(124명)가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대답했어요.

어피티가 **617**명의 MZ세대에게 물었습니다.

* 5월 17~23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Q 당신의 현재 직업을 선택해주세요.

- ① 관리자 및 임원 ② 전문직 및 연구원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⑤ 영업·판매직 ⑥ 생산직 ⑦ 기술·기능직 ⑧ 자영업 및 프리랜서
⑨ 공무원 및 공공기관 ⑩ 문화예술 ⑪ 학생 ⑫ 구직 중 ⑬ 기타

현재 직업에 만족하나요?(재직 중 517명)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현재 몇 년째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나요?(재직 중 517명)

- ① 1년 미만 ② 1~3년 ③ 3~5년 ④ 5~10년 ⑤ 10년 이상 ⑥ 기타

이직을 고려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회사에 오래 남아 있을 계획인가요?(재직 중 517명)

- ①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② 현재 회사에서 몇 년 더 근무하고 싶다
③ 현재 회사에 오래 남아 있을 계획이다
④ 아직 확실하지 않다 ⑤ 기타

현재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진로를 변경하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재직 중 517명)

- ① 고려 중이다 ② 확실하지 않다 ③ 현재 직무에 만족한다
④ 변경하고 싶지만 불가능할 것 같다

현재 직무 외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진로 변경을 원하는 293명)

- ① IT·기술 분야 ② 예술·디자인 분야 ③ 금융·경제 분야
④ 교육·사회 서비스 분야 ⑤ 자영업·외식 분야 ⑥ 건강·웰니스 분야
⑦ 과학·연구 분야 ⑧ 마케팅·광고 분야 ⑨ 여행·관광 분야
⑩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분야 ⑪ 스포츠·레저 분야

진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진로 변경을 원하는 29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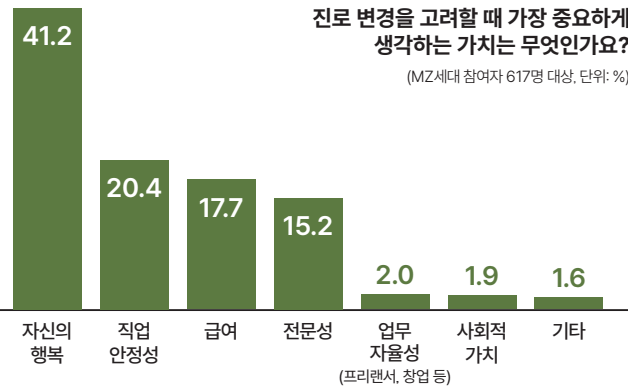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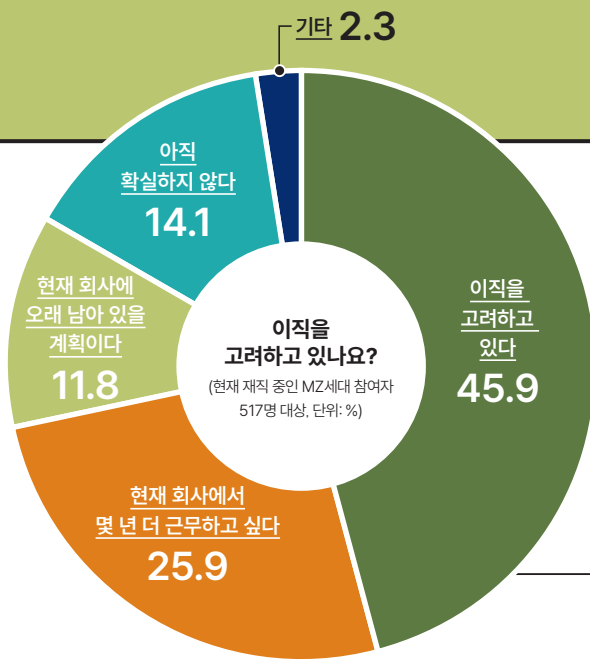
- ①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②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③ 금전적인 이유
④ 개인적인 이유(가족, 건강 등)
⑤ 기타

진로 변경을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진로 변경을 원하는 293명)

- ① 금전적으로 불안해질까봐 ② 적응을 못하거나 실패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③ 자격 미달이나 기술 부족으로 인해
④ 현재까지 쌓은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⑤ 기타

진로 변경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 ① 급여 ② 직업 안정성 ③ 전문성 ④ 업무 자율성(프리랜서, 창업 등)
⑤ 자신의 행복 ⑥ 사회적 가치 ⑦ 기타



요. '금전적인 이유'를 꼽은 사람은 25.3%,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이유는 20.5%로 나타나 직업 만족도 외에도 경제 상황과 개인의 흥미나 열정이 진로 변경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현재 직무 외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IT·기술 분야'와 '예술·디자인 분야', '교육·사회 서비스 분야' 순서대로 많은 선택을 받았어요. 한때 연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개발자로 직무를 변경하는 것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짐작돼요.

'예술·디자인 분야'와 '교육·사회 서비스 분야'는 'IT·기술 분야'로 이직하고자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창의적인 예술이나 디자인 영역은 보통 개인의 내부적인 동기에서 도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며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교육·사회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위해 진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진로 변경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MZ세대는 왜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 '자격 미달이나 기술 부족(164명)'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어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공부할 것도 많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갖추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141명)'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어요. MZ세대는 적응력이 빠

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지만 '진로'라는 큰 결정 앞에서는 선불리 행동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여요. '금전적으로 불안해질까봐(139명)'라는 이유도 많이 선택했는데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현재까지 쌓은 커리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84명)'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행복'

마지막으로 MZ세대가 진로 변경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했어요. '자신의 행복'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많은 MZ세대가 경제적 이익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직업 안정성'도 두 번째로 높은 비율(20.4%)을 차지했어요. 이 외 경제적 보상을 위한 '급여(17.7%)'와 한 분야에서 전문가 될 수 있는 '전문성(15.2%)'을 선택한 이들도 있었어요.

진로 변경은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불가능한 것은 유치원 입학밖에 없다'라는 우스갯소리를 떠올려봐요. 조건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새로운 길을 향해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K**

한강에 이런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환경연구 진로체험'

“제가 떠온 한강 물에서 작은 물고기가 움직여요!”

“그게 바로 동물플랑크톤이에요.”

“한강에 플랑크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5월 9일 경기 양평군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열린 환경연구 진로체험 현장.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체험에 참여한 조현초등학교 5학년생 17명은 각자 채집한 플랑크톤을 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강은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사용하는 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소중한 한강을 깨끗하게 지키고 보전해야겠지요?”

“네!”



한강물환경연구소의 환경연구 진로체험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생태관의 대형 수족관에 담긴 우리나라 고유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위) 어린이들이 직접 채집한 한강 물을 들여보이고 있다.
(아래) 채집한 한강 물속 플랑크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아이들.
신기한 모양의 플랑크톤을 발견할 때마다 탄성이 쏟아져나왔다. 사진 C영상미디어

아이들이 합창하듯 대답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연구 관련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한강수계의 물환경 생태에 대해 연구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팔당호 등 한강수계 물환경 개선 및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주제 전시관 통해 한강 생태계를 한눈에

진로체험 교육은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을 시작으

로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현장체험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수생생물 이론 교육시간에는 생태계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1차 생산자인 플랑크톤과 식물플랑크톤, 1차 소비자인 동물플랑크톤, 2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 3차 소비자인 큰 물고기를 차례로 소개한다.

“물속에 사는 동물과 식물을 모두 합쳐 수생생물이라고 해요. 팔당호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육지에도 식물이 있듯이 물속에도 식물이 살아요. 식물플랑크톤은 생태계 피라미드의 가장 하위에 있는 생산자예요. 식물플랑크톤은 크게 녹조류와 규조류, 남조류 등으로 나뉩니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노성유 연구사의 설명에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났다.

“여러분 ‘녹조라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단세포 생물인 플랑크톤은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갈색과 녹색 등을 나타내는데 여름철 한강이 초록으로 바뀌는 건 초록빛을 가진 플랑크톤이 많이 번식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예요.”

플랑크톤에 이어 멸종위기종,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까지 다양한 수생생물에 대한 설명에 아이들은 질문을 던지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이론 교육이 끝나고 생태관 탐방이 이어졌다. 한강물환경생태관은 ‘물이 전하는 여섯 가지 이야기’를 테마로 복합문화공간인 ‘행복의 물’과 다섯 개의 주제 전시관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가물치나 각시붕어 등 한강수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류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형수족관을 비롯해 우리가 마시는 수도물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는 모형물 등 다양한 전시물 관람이 가능하다. 아이들은 수족관에 붙어서 신기한 듯 물고기를 관찰하고 모래에 숨어드는 자라를 보면서 깔깔 웃기도 했다.

대형수족관을 지나 ‘물 그리고 한강’ 코너에서는 인터랙티브 영상과 함께 생생한 물소리를 들으며 한강 위를 걸어볼 수 있다. ‘정보의 물’ 코너에서는 내가 사용한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수 처리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강에서 생활하는 동식물을 테마로 한 리듬게임은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였다. 생태관 탐방을 마치고 본격적인 현장체험 교육이 시작됐다. 구멍조끼를 입고 한강 물 채집에 나선 아이들의 얼굴에 기대감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채수기 다항목수질측정기는 수질을 체크하는 장비에

요. 센서를 이용해 수온과 물속 용존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오늘은 네트를 이용해 한강 속 다양한 생물을 모으는 체험을 해볼 거예요.”

노 연구사의 설명에 따라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한강 물을 길어올려 각각의 채집통에 담았다. 채집통에는 육안으로도 확연히 보일 만큼 수많은 동물플랑크톤이 헤엄치고 있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탄성이 쏟아져나왔다.

진로체험 신청 줄이어

다음은 채집한 한강 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차례다. 연구실에 모인 아이들은 채집한 한강 물을 슬라이더에 넣고 현미경에 올렸다. 그러자 다양한 종류의 식물플랑크톤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빗살무늬의 김발돌말(프라질라리아), 장구를 닮아 이름 지어진 팔장구말(스타우라스트럼) 등 수온이 낮은 계절에 많이 볼 수 있는 규조류의 플랑크톤이 관찰됐다.

“1000배로 확대하면 더 작은 미생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동물플랑크톤 사이클롭스에는 눈도 달려 있어요. 잘 관찰하면 심장이 뛰는 것도 볼 수 있죠.”

백준수 연구사의 말에 아이들이 현미경에 연결된 모니터 앞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불그스름한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모습이 신기한 듯 눈을 떼지 못했다. 이서윤(10) 양은 “플랑크톤이 엄청 빠르게 움직여요. 집에 가져가서 제가 키우는 물고기 먹이로 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체험활동은 낮 12시가 돼서야 끝이 났다. 아이들에게 “주말에 다시 놀러오라”며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달래던 노 연구사는 9월까지 진로체험 예약이 꽉 찼다며 학교마다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 진로체험을 신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태구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진로체험은 한강의 물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연구직이란 진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진로체험 교육은 양평군 혁신교육 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에듀버스와 함께 그린(Green) 양평 이(e)클릭’ 사업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로 진행한다. **☑**

서경리 기자

“진로체험은 한강의 물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연구직이란 진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수중생태계 보전·복원 연구부터 수질 모니터링까지

한강물환경생태관을 운영하는 한강물환경연구소는 수중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갖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 국가 수질 측정망을 운영하며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한강수계 수질경보제를 운영한다. 또 수질을 사전에 예측해 수질오염을 낮출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고 예보에 필요한 수질과 유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한강수계의 하천 및 호수 관리도 맡는다. 각 유역의 퇴적물 특성을 조사해 퇴적물환경질 보전정책을 세우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1977년부터 현재까지 163개국 2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수질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유역 환경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일도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주요 업무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 한강수계 48개 단위 유역과 진위천 단위 유역의 14개 지점에서 수질조사와 동시에 유량 변화 및 변화 추세를 지속적으로 조사한다. 팔당유역 수질 보전을 위한 종합진단평가 연구와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한강물환경생태관은 한강 물환경 생태에 관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유아·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통해 수질 보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유역 개념을 홍보하기 위해 1988년 건립됐다.

20주년 맞은 장애인 사물놀이패 땀띠

서로의 장애를 넘어 땀띠 날 만큼 연습 20년 합 맞추다 보니 눈빛만 봐도 척!

“얼썬!” “딩더더더 쿵더쿵.”

5월 1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지하 연습실, 사물놀이패 ‘땀띠’가 연습에 한창이었다. 장구 장단이 빠르게 휘몰아치다가 느려지더니 다시 빨라졌다. 엇박자가 나기도 했지만 어느새 소리는 합을 맞춰갔다.

‘땀띠’는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다운증후군 등 서로 다른 중증장애를 가진 청년들로 이뤄진 국악팀이다. 뿔과 리를 맡은 이석현(31) 씨는 근육이 강직돼 하반신을 제대로 못 쓰고 손이 잘 펴지지 않는 뇌병변장애가 있다. 징을 맡은 조형곤(33) 씨는 지적장애로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장구와 북을 각각 맡고 있는 박준호(34) 씨와 고태욱(32) 씨는 자폐성장애인이다.

‘땀띠’는 2003년 결성됐다. 당시 초등학교 3~5학년이던 이들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음악치료를 받다가 ‘원팀’으로 뭉쳤다.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눈 맞춤도 못하고 따로 놀던 이들이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면서 다른 사람의 파트를 기다릴 줄 알고 자신의 파트를 적절하게 찾아갈 줄도 알게 됐다. 한 번의 고갯길으로 연주를 시작하고 눈을 맞추며 장단의 고조를 넘나드는 모습은 20년 세월이 무색하지 않게 만든다. 그때도 지금도 이들은 악보 없이 연주한다. 악보를 읽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흥으로 연주를 배워 몸에 익히다보니 장단을 맞춰나가는 게 더 익숙하다.

‘땀띠’는 창단 이듬해인 2004년, 한 복지관이 주최한 장애인풍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2007년에는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 학생부에서 2등에 해당하는 버금상을 받는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2008년에는 장애인 국악팀으로는 보기 드물게 90분 단독 공연을 올렸다. 이후로도 2012년 일본 초청 오케스트라 협연,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 공연, 2013년 창단 10주년 공연 ‘땀띠날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을 만났다. 그리고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을 가졌다.

‘땀띠’라는 이름에는 눈물겨운 사연이 담겨 있다. 연습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서울 은평구의 작은 연습실을 빌렸는데 에어컨이 고장 나는 바람에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땀에 젖은 채 연습하다 보니 팀원 모두 온몸에 땀띠가 났다. 이때 흘린 땀과 열정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팀 이름을 ‘땀띠’라고 지었다고 한다.

이름에 얹힌 사연만큼이나 역경도 많았다. 악기를 보관할 곳이 없어 지하 주차장을 빌려 보관하다 악기에 곰팡이가 슬어 못쓰게 되기도 했고 소리와 진동이 커서 연습 도중 신고가 들어와 연습을 중단한 적도 있다. 또 연습실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공연이 취소되기도 했다. 수많은 고난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묵묵히 무대를 지켜왔기에 지금의 ‘땀띠’가 존재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땀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2년부터 전통 사물놀이에서 창작국악으로 영역을 넓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첫 창작국악 앨범 1집을 냈으며



2003년 결성된 사물놀이패 '멤뽀'의 팀원들. 왼쪽부터 조형곤·이석현·박준호·고태욱 씨. 사진 C영상미디어

2020년 2집 앨범을 냈다. 지금은 켄메, 슈르티 박스, 카혼 등 세계 각국의 악기를 배워 국악기 외에도 서너 개의 악기를 다룰 만큼 성장했다. 아이에서 청년이 된 팀원들은 모두 취직해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이 씨는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해 KBS 장애인 앵커로 활

동했었다. 고 씨는 장애인 최초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연희과를 졸업하는 기록을 남겼고 조 씨는 국악과를 졸업해 전문 공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박 씨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장애인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공연과 무대를 통해 얻은 당당함으로 자존감을



“각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합을 맞추는 데 힘들었다. 지금은 오래 공연을 하다 보니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 같다.”

사물놀이패 '땀띠'가 5월 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창단 20주년 기자간담회에 앞서 시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높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 씨는 “뇌병변이 있어 다리뿐만 아니라 손도 불편하다. 재활치료로 푸는 데 한계를 느껴 악기를 배워보자 해서 건반악기를 시작했는데 손가락 마디를 넓히기가 쉽지 않았다. 장구는 채를 쥐고 치면 되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기심이 생겼다. 타악기를 두드리며 그동안 마음에 쌓인 감정이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교우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느꼈는데 감정이 해소되고 나니 자신감이 붙어 먼저 다가갈 수 있었다. 고등학교 댄 전교 부회장을 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이 씨의 어머니 최두희 씨가 말을 거들었다. “악기를 두드리며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표출했던 것 같다. 사춘기를 힘들게 보내진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대회에도 나가고 상도 받으며 자신감을 얻더라. 장애가 있어도 자신이 설 자리가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아 지금의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이 20년을 함께하기까지에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 씨는 “처음에는 각자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 엇박자가 나기도 하고 합을 맞추는 데 힘들었다. 오래 공연을 하다 보니 지금은 서로에게 익숙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팽과리는 양손으로 연주하는 악기인데 오른손이 불편해서 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다리가 불편해 운동량이 적다 보니 폐활량이 부족해진다.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나 움직임이 필요한 악기를 연주할 때는 긴

장이 된다”면서 어려움을 털어놨다. 조 씨는 ‘열두 발 상모 돌리기’를 가장 힘든 일로 꼽았다. 이 씨가 옆에서 “형이 공연 중에 열두 발의 긴 상모를 돌리는데 처음엔 많이 어지러워하고 끈이 잘 안 돌아가 연습을 많이 했다. 상모 끝에 추가 달려 있어 자칫 잘못하면 어깨에 닿아 상처가 생긴다”며 거들었다. 박 씨는 “장구를 치면 신이 난다”면서 자신의 장구를 두드렸다. 박 씨의 어머니이자 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상구 씨는 “장구를 하도 쳐서 손에 굳은살이 박일 정도”라고 덧붙였다.

비장애인에게도 20년간 팀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들이 오랫동안 팀을 유지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 씨는 “위기가 한 번씩 있었다. 입시 준비 때도 그렇고 직장에 다닌 후 서로 공연 시기를 맞추기 힘들어 공연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온 데는 각자의 삶을 존중해줬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개인 시간을 최대한 존중해주면서 함께 조율해나간 점이 땀띠를 오래 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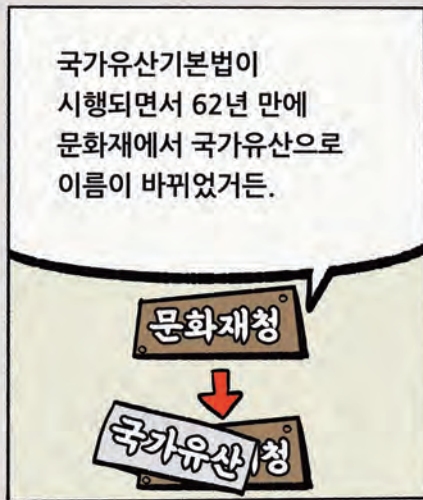
조 씨가 옆에서 “땀띠가 좋아. 좋아해요”라며 해맑게 웃었다. 조 씨의 말처럼 ‘땀띠’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팀원 모두가 ‘땀띠’를 즐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로의 장애를 이해하며 하나가 됐고 재미있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꺼이 달려가 신명 난 공연을 펼쳤다. 무대를 즐기는 데는 어떤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을 내려놓고 흥을 즐기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프로다. **K**

서경리 기자



국가유산청 출범

‘문화재’ 말고 ‘국가유산’



“일이 내 삶의 전부였는데 돌아보니 뭔가 빠진 듯 내가 잘 살아온 걸까요?”

Q

저는 일을 사랑합니다. 무엇이든 저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건 열여섯 살 때였어요. 동네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청소를 돕는 일이었는데 첫 월급을 받은 날 제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가 없는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집이 가난하거나 부모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마음을 움직인 건 일

을 할 때마다 느껴졌던 '내가 쓸모 있다는 만족감'이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대신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설날과 추석 말고는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연애나 취미활동에는 관심이 없었고 쉬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해졌어요.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자산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일만 하다 얼마 전 제 삶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샘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과연 잘 살아온 걸까요? 일 말고도 제가 만나고 겪어야 했던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요? 헛헛한 마음이 듭니다.

(김혜선·가명, 42)

독자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giyultv@gmail.com으로
보내면 됩니다.
채택된 사연은
'신기울의 마음 상담소'
지면을 통해
상담해드립니다.

A

먼저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달려온 혜선 님의 삶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혜선 님만큼 열심히 살지 못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찾아온 결과가 경제적인 안정만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원하지 않던 병이 함께 찾아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전념하면 틀림없이 완쾌되리라 생각합니다.

혜선 님처럼 일을 사랑하며 오직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다만 일만 하고 제대로 쉬지 않는다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포드자동차를 설립한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

“열정과 성실함이라는 강력한 엔진에는 휴식이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브레이크의 존재를 일깨워 주기 위해 병이라는 시련을 겪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엔진만큼 강력한 브레이크가 달린 제2의 삶을 만들어 가길 바라겠습니다.”



신기율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풀링(Mindfulness) 대표이자 '신기율의 마음찾집'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부모가정 모임인 '그루밍' 교육센터장이다.

습니다.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 매우 위험하다.” 이런 위험한 상태를 다른 말로 ‘일중독’이라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 중독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공통으로 우울증이나 번아웃증후군(탈진증후군) 같은 정신적 문제나 심혈관질환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치유해야 할 병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중독은 치유해야 할 질환’

일중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 일 중독자 협회는 일중독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감이 밀려옴 ▲일 이외 다른 취미나 사회적 활동에는 관심이 없음 ▲지쳐 있다가도 일만 하면 마음이 들뜨고 에너지가 샘솟음 ▲자기 전까지 또는 주말이나 휴가 때도 머릿속에 일과 관련된 생각이 가득 참. 만약 위 네 가지 증상 중 세 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중독을 성실함으로 해석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잠을 줄여가면서 가족이나 친구와 보낼 시간을 포기하고 여가시간도 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태도를 권장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균형 잡힌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든 사회적 측면에서든 일중독은 개선해야 할 습관이자 치유해야 할 질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혜선 님의 경우 환경에 의해 강요된 일중독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스스로 만들어간 습관성 일중독에 해당합니다. 타고난 완벽주의 성향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성취욕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성향이 충족될 때만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타고난 성향이 충족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잘하지 못할 때도 혜선 님은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자기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수용성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한계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비난을 피하려고 자신이 잘 알지 못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낯선 분야는 외면하거나 경험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혜선 님은 일과 성취의 모습만 수용하느라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여유로움을 놓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들었던 것 같고요.

열심히 일했던 만큼 열심히 쉬고 치료받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보세요. 혜선 님의 열정과 성실함이라는 강력한 엔진에는 휴식이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런 브레이크의 존재를 일깨워주기 위해 병이라는 시련을 겪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엔진만큼 강력한 브레이크가 달린 제2의 삶을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K**

제주 동부 여행

우도에서 힐링하고 비자림서 속살 보고 돌문화공원서 설화 만나고 당일치기로 제주를 품다



(왼쪽) 돌담과 알록달록한 지붕이 어우러진 우도는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제주를 보여준다. 우도 뒤로 제주 본섬의 성산일출봉이 보인다.
(오른쪽) 하얀 돌멩이 같은 홍조단괴로 이뤄진 우도의 홍조단괴해변이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당일치기로 제주도 여행이 가능하냐고? 한 가지만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제주도의 동서남북 중 여행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이다. 하루에 제주도를 다 볼 수는 없다는 말이다. 유명 관광지가 아닌 제주의 자연을 즐기고 싶은 사람을 위해 동부를 추천한다. 서부나 남부보다 자연이 더 가깝다. 오름과 숲, 바다 등 자연 그대로의 제주를 오롯이 느낄 수 있다. 특히 동부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우도, 비자림, 돌문화공원이 있다. 서울에서 출발해 당일치기로 세 곳을 다녀왔다. 오전 6시 비행기로 갔다가 저녁 9시 비행기로 돌아온 일정이었다.

섬 속의 섬, 우도

당일치기 제주 동부의 첫 여행지로 우도를 선택했다. 제주

동쪽 끝 성산포에서 북동쪽으로 약 3.9km 떨어진 우도는 제주도가 품은 또 하나의 섬이다. 우도는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이 마치 소가 누워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해안도로를 따라 차로 1시간여,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포항에 도착해 우도행 여객선에 올라탔다. 푸른 바닷바람을 맞으니 비로소 제주에 왔다는 실감이 났다. 파도를 밀어내며 15분, 드디어 우도에 발을 디뎠다.

둘레 17km, 면적 605ha 정도의 우도는 제주도에 소속된 60여 개의 섬 중 가장 넓다. 완만한 오름과 층층이 쌓인 해안 절벽, 흰색의 홍조단괴가 부서져 생긴 해변은 손때 타지 않은 그대로의 제주를 마주할 수 있다.

우도 여행은 천진항 또는 하우목동항에서 시작된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섬 중심을 제외하고 외곽의 주요 여행지



소가 머리를 들고 누워 있는 듯하다고 해 일명 '쇠머리 오름'으로 불리는 제주 우도봉. 거대한 해식동굴이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를 다 돌아보는 데 4시간이면 족하다. 선박 운항 시간을 염두에 두고 섬 일주를 계획하면 반나절로도 충분히 우도를 즐길 수 있다.

천진항에서 출발해 시계 방향으로 여행을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홍조단괴해변과 만난다. 홍조류의 산호말 등은 광합성을 하며 세포 사이에 탄산칼슘을 침전시키는데 이것이 단단하게 돌처럼 굳으면 홍조단괴가 된다. 우도8경에 속하는 홍조단괴해변이 제 이름을 찾은 건 최근 일이다. 한때 백사장의 흰모래를 산호로 알고 서빈백사나 산호사해변으로 불리기도 했다. 우도에 서식하는 홍조류가 만든 홍조단괴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해 자연유산으로 지정됐으며 반출을 금하고 있다.

해변을 빠져나와 하우목동항을 지나 동쪽으로 향하면 현무암을 쌓아올려 만든 망루와 눈부시게 하얀 득생곶등

대를 만난다. 등대 옆 바다에는 전통 어업 방식을 재현한 원담(독살)이 있다. 밀물 때 바닷물을 타고온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일종의 돌 그물로 옛 제주인의 생활상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등대를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하고수동해수욕장이 나온다. 물이 맑고 백사장 모래가 고와 아이들도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주변으로 이국적인 카페가 몰려 있어 잠시 더위를 식히기에 좋다.

하고수동해수욕장 인근, 우도와 짧은 다리로 연결된 비양도는 섬 속의 섬이다. 비양도에서도 '백패킹의 성지'로 불리는 연평리야영지는 우도에서 제일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 근방 '해녀의 집'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유명 식당이다. 해녀들이 물질해온 싱싱한 뽕소라를 즉석에서 구워 내주는데 맛이 일품이다.



(왼쪽) 거목들이 군집한 비자나무숲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오른쪽) 돌문화공원으로 향하는 입구에 오백장군을 형상화한 거대한 석상이 공간을 압도한다.

비양도를 빠져나와 우도봉으로 향하는 길, 마을 주민들이 일궈놓은 보리와 마늘, 땅콩밭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땅콩은 우도 특산물 중 하나다. 웬만한 카페마다 땅콩을 테마로 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류를 판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에 고소한 땅콩을 올린 땅콩아이스크림은 우도의 별미다.

우도의 마지막 여행지는 야트막한 언덕, 우도의 머리로 불리는 우도봉과 검멀레 해변이다. 우도봉은 우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꼭대기에 오르면 우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검멀레 해변에서 출발해 우도봉 정상에 오르기까지 대략 20분이 소요된다.

검멀레 해변은 우도봉의 동쪽에 자리한다. 검멀레는 ‘검은 모래’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검은 모래사장 옆으로 얇은 퇴적암이 층층이 쌓인 거대한 바위가 서 있다. 퇴적층에는 콧구멍처럼 뚫린 거대한 해식동굴이 있다. 동굴보트를 이용하면 가까이에서 웅장한 동굴을 마주할 수 있다. 제주 본섬으로 돌아와 구좌읍 종달리에 자리한 지미오름에 오르면 소머리부터 꼬리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우도의 독특한 형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신비로움을 간직한 제주의 속살, 비자림

우도에서 제주 바다의 풍광을 눈에 담았다면 제주의 속살, 숲으로 향해보자. 성산포항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울창한 비자나무숲 비자림이 있다.

구좌읍 평대리에 자리한 비자림은 44만 8165㎡ 대지에 수령 500~800년의 비자나무 28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높이 7~14m, 직경 50~110cm, 수관폭 10~15m에 이르는 거목들이 군집해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비자림에서 최고령인 나무는 850세에 육박한다. 비자나무가 1년에 고작 1.5cm 자란다고 하니 얼마나 오랜 세월 숲을 지켜왔는지 짐작해볼 수 있다. 비자나무 외에도 자귀나무·팽나무·비목나무 등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숲을 메우고 있다.

비자림에 가면 놓쳐서는 안될 나무 세 그루가 있다. 입구에 있는 벼락 맞은 비자나무와 수령이 850년에 달하는 새천년비자나무, 두 나무가 붙어 한 그루가 된 연리목이다. 보물찾기하듯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비자림의 또 다른 매력은 우거진 나무에 가려진 아지트 같은 휴식공간이다. 울창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 향긋한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진다. 또 화산송이로 길을 낸 산책로를 따라 자박자박 걷다보면 머리가 단순해진다.

“녹음이 짙은 울창한 비자나무 숲속의 삼림욕은 혈관을 유연하게 하고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해소하며 신체 리듬을 되찾는 자연건강 휴양효과가 있습니다.”

탐방해설사의 말을 따라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어본다. 자연이 주는 기운이 온몸에 스며들며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든다.

울창한 아름드리나무의 매력을 충분히 눈에 담았다면 아래쪽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풍란과 콩짜개난, 비자란 등 희귀 난과 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아기자기한 꽃들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다.

비자림 산책로는 A·B코스로 나뉜다. A코스는 거리가 2.2km로 40분 정도 소요된다. 대부분 화산송이가 깔린 평지로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다. A코스에 추가로 1km를 더한 B코스는 거친 돌멩이 길이 있어 다리가 불편한 이들이 걷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제주 자연과 문화의 쉼터, 돌문화공원


여행의 마무리는 조천읍 교래리에 자리한 돌문화공원이자 돌문화공원이다. 제주도의 모든 석상을 다 모아놨다고 할 정도로 전시 규모가 방대하다. 제주도 탄생 신화인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테마로 조성된 공간은 제주의 오랜 역사를 탐색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제주돌문화공원은 돌의 고향인 제주도를 보여주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이다. 제주도의 모든 석상을 다 모아놨다고 할 정도로 전시 규모가 방대하다. 제주도 탄생 신화인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테마로 조성된 공간은 제주의 오랜 역사를 탐색하기에 더할 나위 없다.

공원은 크게 제주돌박물관과 돌문화전시관, 야외전시장, 제주전통초가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거대석상 사이를 지나 숲속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면 박물관과 제주의 전통 초가들을 볼 수 있다. 박물관은 지상이 아닌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자연환경과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총면적 9만 904㎡, 지하 3층 규모의 제주돌박물관은 돌 갤러리와 제주형성전시관, 영상실, 기획전시실로 이뤄져 있다. 돌갤러리에는 화산섬 제주의 자연석을 전시했고 제주형성전시관에서는 제주의 화산활동을 주제로 오름·동굴·지형·지하수·화산분출물을 보여준다. 옥상에는 하늘 연못이 있어 수상 무대로도 사용된다.

야외 전시장에서는 48기의 돌하르방과 액운을 몰아낸다는 방사탑, 도둑이 없어 대문도 없다는 제주의 상징인 정주석, 망자의 한을 달래준다는 동자석 등을 볼 수 있다.

우도에서 시작해 짧고 굵게 제주의 진면목을 마음에 담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녁 노을을 삼킨 제주 바다가 하루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서경리 기자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

성산항에서 3.9km 떨어진 우도는 여객선을 타고 10~15분이면 도착한다. 천진항과 하우목동항 두 군데 항구로 입도할 수 있다. 여객선은 성산포항종합여객터미널에서 30분 간격(오전 8시~오후 6시 30분)으로 운항한다. 성인 기준 왕복 1만 500원, 경로·장애·유공자의 경우 왕복 9000원이다. 예매 시 신분증을 확인하니 꼭 챙길 것. 차를 가지고 입도할 경우 왕복 요금 기준 경차는 2만 1600원, 중·소형차는 2만 6000원.

주소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동로 112-7

문의 (064)782-5671



렌터카로 우도 들어갈 수 있나요?

우도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반 렌터카의 입도를 금하고 있다. 단 숙박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렌터카 입도를 허용한다. 우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해안도로 순환 마일버스가 있다. 성인 기준 8000원의 요금으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자전거나 스쿠터, 전기차를 대여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종일 대여비가 3만 원대로 시간 단위 예약도 가능하다. 스쿠터와 전기차 대여 시 면허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

K-뷰티·K-패션 체험으로 한국 즐긴다 6월 한 달간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뷰티·메이크업·헤어·패션·의료·웰니스 등을 선보이는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서울 주요 지역에서 6월 한 달간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선 방한 외국인들을 위한 할인 제공, 뷰티 제품 증정,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행사 중에는 헤어·메이크업 특화(홍대), 패션 특화(성수), 리워드 이벤트(명동) 등 테마별 거점이 운영된다. 홍대 레드로드 인근 '뉴드카페' 야외마당에선 K-뷰티를 주제로 한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체험 등이 진행되며 뷰티플레이 홍대점 및 홍대 레드로드에서는 K-컬처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성수동 연무장길 일대에서는 K-패션을 주제로 패션 레시피, 포토 스튜디오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명동 예술극장 앞마당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에서는 K-뷰티 기념품을 증정하며 뷰티플레이 명동점에서는 뷰티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선 홍보 및 전시존 등이 운영된다. 프로모션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예약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koreabeauty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제 2024 증평 장돌 들노래 축제

충북 증평군의 전통 농경문화 축제인 '2024 증평 장돌 들노래 축제'가 열린다. '신고동락(新古同樂) 장돌에서 열쑈'를 주제로 증평의 특색 있는 전통 농경문화를 선보이는 자리다. 길놀이와 화평기원제를 시작으로 사물놀이 및 줄타기, 두레농요 시연, 장돌두레 민복 체험, 떡메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간 6월 15~16일

장소 충북 증평군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일대



공연 뮤지컬 '시카고'

뮤지컬 '시카고'가 3년 만에 17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시카고' 한국 프로덕션은 2000년 한국 초연 이후 누적 공연 1500회, 누적 관객 154만 명에 이르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시즌에는 최정원, 윤공주, 아이비, 티파니 영, 박건형, 최재림 등 29명의 배우와 15인조 라이브 빅밴드가 함께한다.

기간 6월 7일~9월 29일

장소 디큐브 링크아트센터



전시 저고리 어제와 오늘(1960~2024)

다양한 저고리를 통해 전통 침선의 맛을 드러내는 전시가 열린다. 국가무형유산 침선장 구혜자 보유자가 196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여성 저고리 작품을 소개한다. 지난 50여 년간 구혜자 보유자가 작업한 작품 15점, 침선장 초대 보유자였던 고 정정원 명예보유자의 작품 6점 등 총 60여 점을 선보인다.

기간 6월 3~12일

장소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3층 전시관 올

피플 | 에세이 '결과를 아는 선택은 없다' 펴낸 전 축구선수 이동국

“선택은 어렵지만 두렵지는 않아 다시 선택할 시간”



사진 조세DB

“축구를 하면서 배운 것들, 굴곡 많은 인생 이야기와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선택할 시간이 이제 다가온 것 같다.”

한국 최연소 월드컵 본선 출전, K리그 통산 최다 득점 등 선수로서 무수한 기록을 남긴 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축구 인생의 소회와 은퇴 후 삶을 다룬 에세이 '결과를 아는 선택은 없다'를 펴냈다.

5월 27일 책 출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국은 “2013년에도 은퇴를 준비하며 책을 냈었는데 그 뒤로 7년을 더 뛰었다”며 “지난 7년간의 일들과 은퇴 후의 삶들을 정리하고자 다시 책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국은 만 19세 나이에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하며 역대 한국 선수 최연소 월드컵 출전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선수 시절 출발은 화려했으나 이어진 부상과 기량 하락으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으나 기대한 만큼 활약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전북현대대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또 철저한 자기관리와 꾸준히 쌓아올린 실력으로 뛴다며 선수로서 기량을 뽐냈고 만 41세에 은퇴했다. 책에서 이동국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선택은 어렵다. 그렇지만 두렵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준비하고 잘 판단해서 선택해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고 선택 하나로 모든 일이 엉망이 되지는 않는다”고 덤덤하게 소회를 풀어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국은 “축구를 하면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있어야 할 곳은 축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퇴 후 축구 해설과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해온 이동국은 이제 '인생 3막'을 준비하고 있다.

“축구를 하면서 마주친 수많은 갈림길에서 내가 한 선택이 다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했건 과정이 좋았다면 결과를 받아들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

서경리 기자



저자 박진배(호형출판)

도서 낭만식당

한때 레스토랑을 창업해 손수 운영했고 지금은 미국 뉴욕 패션공과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 교수로 재직 중인 미식이 박진배가 30여 년간 기록해온 미식 일지다. 뉴욕 맨해튼과 한적한 시골, 프랑스의 부르고뉴와 미식 도시 리옹, '맛객'들의 성지인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포도밭과 소고기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멘도사 등 세계 곳곳을 다니며 얻은 경험을 풀어놓았다. 진정한 요리란 무엇인지, 레스토랑에 담겨야 할 가치와 셰프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 박현경(설렘)

도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음악치료사로 일한 저자가 30년간 장애인 아들을 키우며 경험하고 느낀 모든 이야기를 에세이로 엮었다. 장애 아이가 성인 장애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자는 이 책이 아이의 장애를 판정받고 막막한 엄마에게는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나와 다른 성향의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다는 엄마에게는 희망이 되고,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인식의 전환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서경리 기자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한강에 나란히 떠 있는 오리배를 보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느라 힘들어하면서도 오리배를 타고 즐거워하는 저를 보며 웃던 아빠의 얼굴이요. 요즘 오리배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하더군요. 다음에는 편안하게 오리배를 타고 한강을 느긋하게 즐겨볼까 합니다.

이유진 서울 양천구

공감 칭찬합니다!



756호 홀로 사는 어르신이 노인돌봄로봇 '효돌'을 손주처럼 안아주는 사진을 보고 코끝이 찡했어요. 로봇과 인간의 공존이 어느덧 현실이 된 건 놀랍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라도 사람의 온기를 전해주진 못한다고 생각해요. 돌봄로봇을 잘 활용하되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과 애정을 쏟았으면 합니다.

유설아 강원 원주시



755호 '늘봄학교' 홍보에 나선 박주호 전 축구 국가대표와 딸 나은이의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맞벌이가 대세인 요즘 늘봄학교 확대는 학부모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늘봄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정규수업 외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학교가 '늘 봄'처럼 따뜻한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장우익 강원 동해시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K-공감 gonggam.korea.kr

youtube.com/weeklygonggam

blog.naver.com/mcst_pr

facebook.com/wegonggam

v.daum.net/channel/3094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와 '공감 칭찬합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12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제1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기간 2024. 4. 15.(월)
~ 6. 16.(일)

참가부문 성과 우수사례, 실패 극복사례

참가대상 개인 또는 기업

접수방법

전자 또는 일반우편으로 사례 제출

전자우편 kijunlee@korea.kr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위험물안전과

※ 제출서식은 소방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접수결과 확인 필수

향후일정

예선(1차) 서면심사 (6월 중)



본선(2차) 발표심사 (7월 중)



우수사례 선정결과 발표 및 시상 (8월 중)

시상규모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점
소방청장상 2점

★ 수상특전

- 소방청 차원의
'기술검토 > 허가처분 > 완공검사'
절차상 원스톱 컨설팅 지원
-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인센티브 부여

세부 포상규모, 특전 등은 선정 분야별 공모 접수
결과 및 규모·수준 등에 따라 추후 확정 (별도 공지)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



국가보훈부